

# 龍仁文化

1989. 1. 31

第 17 號



龍仁文化院

謹賀新年

併祈過去之善業  
為祈將來之幸福

己巳新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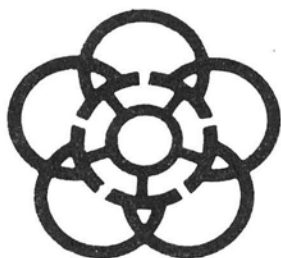
院に文化院

佐藤貞一 同 敬上

# 龍仁文化

1989. 1. 31

第 17 號



龍仁文化院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인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와 함께 藝術을 즐기고 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 군 민 현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현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 차례

머릿말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5
<b>〈論壇〉</b>	한국 가락 구성과 용인지역의 가락 특성	김원룡 7
<b>용구문단</b>	〈詩〉 바람戀歌	박상돈 19
	〈隨筆〉 가을 隨想	박상돈 20
<b>一事一考</b>	東西南北	石岡 22
	書藝를 하고 싶은 初步者들을 위한 小考	元蒼植 25
	漢詩鑑賞	元蒼植 28
	醫窓漫筆 〈其二〉 神農本草經	雲谷金東明 29
<b>特輯</b>	龍仁李氏의 原流〈3〉	31
	農家月令家(1)	33
<b>옛 문헌속의 용인(15)</b>	정포은을 기리며	홍순석 38
<b>龍仁金石遺文資料(13)</b>	충렬서원강당기	홍순석 39
	오늘의 日本	李相鶴 43
	용인문화원 89년도 문화행사 계획	52
	용인문화원 88년도 사업실적	54
<b>사발통문</b>	문화원 소식 및 관내소식	57
	표지설명	42
	편집후기	65

## 머 리 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19세기경부터 문화라는 말은 주로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 정신문화를 말했으며 문명은 외면적인 물질문화를 말하게 되었다.

생물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범위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창조자이며 그 문화를 누리고 사는 인간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한계내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을 초월하기에 이르렀다. 문화는 자연의 단순한 반복이거나 되풀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이 사는 삶의 근원이 되며 인간의 존재와 활동을 싸고도는 환경인 것과 같이 문화도 인간의 삶의 힘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제 2의 자연이라고 말할 서양의 철학자도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단순한 자연의 연장으로만 볼 수 없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며 생활하는 것은 인간만이 향유하는 특권인 동시에 문화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책임도 있고 다른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제 2의 자연을 만들어 원초적인 자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위하여 문화와 접촉하지만 내용있는 풍부한 삶을 얻으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하고 중단없는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문화와 문화현상과의 차이와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현상은 언어 종교 학문 예술 정치조직 법률 습관 기술 경제등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며 이런 요소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는 있을수 없고 문화현상 그 자체도 문화는 아니다. 여러가지 문화현상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관련이 되거나 결합하여 통일적이고 전체적구조를 이루는데서 문화가 형성된다. 이런 통일적이고 전체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라고는 할 수 없다. 문화란 인간생활과 관계없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생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근원인 동시에 삶의 대한 관련을 매개체로 하여야 유기적 구체적 구조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민족생활과 깊은 관심을 가져 그 특유한 구조

적 통일성을 지니며 존재 성격을 나타낸다. 문화는 집단생활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며 이런 방법으로 존재하는 민족 또는 국민문화를 비교할 때 같은 유형의 문화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유형도 있다.

문화는 일정한 구조를 갖추어 성립하면 계속 발전하는 것이다. 어떤 국민이나 민족의 문화가 침체하고 고정상태에 빠지는 일도 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곳에서는 문화도 발전하는 것이다. 문화의 통일적 전체적구조가 장기간의 역사적 발전으로 초래되고 성립되는 것인것과 같이 통일적 전체적 구조에서 이루어진 문화도 그 주체인 국민 또는 민족과 더불어 계속하여 끊임 없는 역사적 발전을 하는 것이다. 한 나라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 나라 문화와 접촉으로 얻어지는 영향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데 빈번하면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을 때에는 문화가 발전하며 질적으로 우수하게 성장한다. 한 나라의 문화가 위축되거나 퇴폐하는 일 없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빛을 발휘하며 발전해 갈때에 그 국민도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나 문화를 중심으로 성립되는 것을 알수 있고 사회 문화 역사의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는데 기본원리가 되는 것이다.



## 한국 가락 구성과 용인지역의 가락특성

김 원 룡

한국의 민속악은 정치적 종교적 또는 부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민중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민속악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우주의 증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가락은 더욱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본질면에서는 바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속에서 이루어진 하모니라 볼 수 있다.

철학자 플라톤은 “리듬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했고, 피테는 “리듬은 마력이 있다”했으며 아리스틀은 “리듬은 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라 함은 바로 리듬은 만물이 흐르고 있는 생명력의 흐름이요, 신의 계시라고 볼 수 있다. 즉 리듬은 우주에너지의 증감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만물에 흐르는 생명력의 음양의 조화가 끊임없이 감기고 풀리고 하는 데에서 이루어 짐을 볼 수 있다.

우리 민속가락은 우주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관계를 前三條三이라 하였고 이것을 되풀이 되어 일어나는 리듬의 원형이며 리듬의 파탄을 전각 후각이 엮어져 두번 되풀이 될때 장단이라 한다.

다시 말해 장단이라 할때 4박 장단 6박 장단이니 하는것은 리듬의 원형 하나가 한 장단일 수는 없다. 장단이라 하였을때 이 리듬의 원형이 두번 되풀이 되었을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민속의 가락의 정의로 본다.

### I. 한국 전통사상과 가락구성

한국의 전통사상을 바로 三經에서 볼 수 있다. 즉 조화경인 천부경과 교화경인 삼일신고, 치화경인 참정계정이 있다. 이중 조화경은 81자로 되어있고 교화경은 366자로, 치화경은 366계문으로 되어있다. 조화경에서 바로 3계

는 天 地 人으로 구성되며 이는 우리민족의 굿의 원형을 이룬 3신 신앙으로 이루어진다. 굿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숨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제정분리가 되지 않은 시기는 바로 「소도」라는 지역이 설정되고 나라에 제단을 쌓아 하늘에 기원을 드리는 의식이다. 이러한 「소도」는 고을에는 진산이 되고 마을에는 당산이 되며 집에는 터주가 되고 방안에는 업이 되는 이치다. 바로 굿은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가무가 함께 어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가락과 무용이 함께 어울려 짐으로써 천지의 기운을 바로 인간에 끌어 들이는 작업이다.

바로 우주조화에서 1년을 12개월 24절기 366일로 잡는다면 인간의 뼈마디가 366마디요 366혈이요 연수에서부터 꼬리뼈가 24마디로 구성되며 우주의 4시를 인간의 사시를 통해서 이루어짐이다. 이로써 우주가 성주괴공으로 바뀌고 인간은 생노병사의 윤회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락은 바로 우주 조화의 하나요 인간의 숨쉬함과 같은것으로 우주자연의 에너지의 증감 관계속에서 우리 가락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악기인 장구에서 볼 수 있는데 장구는 23.5도가 좌측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음양의 조화와 자연의 호흡 에너지의 증감관계에서 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여기에서 장구의 전통부호를 토대로 본인이 채집한 전통 가락을 하나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 II. 우리 민속장단의 부호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면 행복을 느끼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리듬이 우주법칙의 하나라면 리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은 행복자며 보다 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에 불응하면 불행과 파멸이 되는것은 우주자연의 이치이다. 우리 장단의 구음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는데 인간의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해가 쉽다. 그럼 여기에서 장단의 구음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①」 부호는 「합」이라 하는데 음과 양의 기운이 집합(集合)되는 표기이다.

가) 습장단은 모든 장단의 첫째박에 흔히 쓰인다.

즉 만물의 생명력이 생기는 것도 거기에 흐르는 음양의 알맞은 조화가 우주의 법칙과 일치 되었을때 만이 나타나는 원리와도 같이 생명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나) 습장단이라 하여 별개의 것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다.

서구적 분석에서 (+) (-)라는 별개의 것. 둘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 입장에서 하나속에 있는 음양의 조화 때문에 정중동이 되는 것이다.

다) 첫머리에 오는 습장단은 장단이 일어나는 동인지지 박절구성을 위한 강박일 수 없다. 서양음악적 견지에서 첫째 박이 강이라면 다음은 약으로 떨어지는 강약의 연결에 불과한 인위적이고 직선적인 것으로 되지 자연적이고 곡선적으로 될 수 없다.

우리가 음식물의 시각을 통하든지 대상을 연상해서든지 간에 구미가 당길 때 입술 상하가 저절로 합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즉 음양의 습이요, 集이 된다.

「○」 쿵이라 하여 풀리는 것. 즉 해(解)이다. 궁글채가 풀리면서 나는 소리이다.

가) 「○」은 음양의 조화이다.

이 화제는 풀리면서 감기고 감기려다 풀리는 것을 말한다.

나) 쿵(○)은 인력에 저항되고 있는 상태와 정도에 따라 표현이 판이 해진다. 인력이 일치되는 즉 인력이 끌어들면서 풀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쿵은 인력의 저항력이 되었다 풀릴때와 맺었다 풀릴때 풀리면서 짓눌린 때 벗어지면서 풀릴때 등등 그 표현은 다르게 나타난다.

「-」 덕 또는 「다」라 하여 하나속에서 꿈틀거리고 음양이 하나의 형태를 나타낸 다음 생명의 태동을 내포한 것이며 채편에 열채가 죄었다 맺히는 것이다.

우주에 흐르고 있는 기운을 지구만이 유형화 시키듯이 우주의 기운을 지구만이 유형화 시키듯이 우주의 기운을 타고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생명력이 끊임 없이 감리려다 풀리려다 하는 음양이 순간적이거나 맺혀 하나의 주를 이룰때 소리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다」라 했고 움직임의 형태는 동했던 것이 순간적이거나 맺어져 멈추려는 현상이다.

「丨」 「더덕」은 음양이 감겨서 열이 바짝 오르는 상태에서 채편에 열채가 감겨 피여지는 소리다.

즉, 더덕은 심령이 神과 일치하는 순간이다. 음양이 습하여 하나의 극을 이루려는 「따」가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의 정점이다. 바로 神에 접근되는 순간에 「더덕」하고 불꽃튀는 것이다.

「…」 「러」(따르르)가 흐르는 선에 민속고유의 선이 생겨야 한다.  
감정 또는 맺어진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대로 참으며 끝때 풀리는 상황 (따르르)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풀어지는 상황에서 해탈이다.

〔○〕 쿠쿵은 (○) 궁의 겁박이다.

풀려 구르면서 생기는 「쿵」이 연거푸 그르면서 북편에 겹으로 「쿠쿵」 울리는 것이다.

〔◎〕 「쿠쿠쿵」은 쿵의 세 겁박이다.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사이에 깊이살짝 찍힌 궁글채 몸뚱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서 충분히 놀리면서 풀어지며 지구 인력에 끌려 들면서 궁글채 끝 구슬이 굴러 뛰어 연거푸 생기는 소리이다.

「●」 「떠」 열체가 채편을 살짝 짚어주는 짚는 점이다.

〈전통 구음 부호종류와 설명〉

조원	부호			악학 레범	금합	자보	합포 금보	설 명
		구음	명칭					
供	①	딩 (합)	합 (響)	○	oxo	자 쿠쿵	딩	음양이 숨이 조화되어 감기는것으로 북편과 채편이 만나는 것.
解	○	쿵	북 (鼓)	○	oxo	쿠쿵	숨	음양의 화해로 풀리는 것. 북편에 굴러 울려진다.
極		덕 (따)	채 鞭		oxo	찰	더 덕	음양이 하나의 극을 이루어 마음이 쌓기는 것. 채편 채가 마주쳐진다.
結	T	더덕 (따닥)	겹채					심령이 신과 맺어지는 것. 채편 채가 겹으로 맺어진다.
脫	…	라따 르르	채 굴림		oxo >	드르 르	더 레	해탈상태 채편 채가 굴러 떨어진다.
空	○	구	사 이점					숨을 안정시키는 중화상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북편을 찢어지는것
點	●	더	찍는 점					숨도 못쉬고 있는 상태 채편을 찍어 치는것
解	◎	쿠쿵	겹북					음양의 화해가 겹을 이루며 풀리는것 북편에 겹으로 굴러 울려진다.

### Ⅲ. 우리 민속 장단의 실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 흩어진 가락을 직접 채보하여서 그 가락의 특성과 민요속에서 우리 가락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 본다.

#### 1) 세박 (9쪽 장단)

세박 장단은 우리나라에 가장 기본적인 장단이다. 우리 민속의 3이라는 숫자에서 나온다. 3이라는 숫자는 철학의 숫자이며 이는 天, 地, 人의 3제이다. 이 세박장단은 우리 민요의 아리랑, 양산도 노들 강변등에 불린다.

- ① 1 2 3      2 2 3      3 2 3  
 ①              ① |          ○ ●  
 합              합 덕          궁덕

①	①	○
---	---	---

- ② 1 2 3      2 2 3      3 2 3  
 ●①          | ●          ○ |  
 더합          다 더          궁덕

이는 세마치 장단으로 엇박자로 만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2) 네박 (12쪽 장단)

널리 사용되는 이 네박장단은 기악이든지 무악이든지 간에 주동되는 박은 4박이기 때문에 그 완급에 따라 굿거리, 타령, 중중모리, 살풀이, 덧배기, 구녕놀이, 자진모리, 휘모리,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각 특색있는 틀을 나타내고 있다.

##### ① 굿거리 장단

우리민요중 휘늘어 져구나 흥 하는 식의 곡선적인 기분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흥겨운 가락이다. 우리민요중 국분뒤편이 오봉산타령, 양유가, 베틀가, 사발가, 오들뜨기, 창부타령, 한강수타령, 태평가, 잣은농부가, 성주풀이, 박연폭포 개성 난봉가등이 굿거리 장단에 속한다.

- ㉞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①……      ① |          ○……  
 합 따닥      합 따르르    궁 따닥      궁 따르르

①	① :	①	○ 
---	-----	---	---

㉞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① | |      ①○ |      ○ | |  
 합궁다닥      합더따닥      합궁따닥      궁다닥더

② 타 령

우리 민요의 흥은 활듯말듯 출듯말듯 울듯말듯하는 것이며 따라서 궁중에 서 예의범절을 지켜가며 흥이 날듯말듯하여 무게있고 짙얕게 추는 춤이므로 느리게 추어야 한다. 우리 노래중 기생타령, 맹꽁이타령, 바위타령, 실타령, 잣은방아타령, 노래가락, 경북궁타령, 군밤타령,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초맹기등이 타령에 속한다.

㉞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① |              ○ ◎  
 합              합              합 따닥          궁 쿠궁

㉞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              ① |              ○ ◎  
 합              궁 따닥          합 따닥          궁 쿠궁



합              따닥              궁              따닥따닥

③ 살풀이

살풀이는 신라시대부터 추어지던 검무에 쓰이는 것인데 지금 무녀들이 잡귀를 몰아내고 죽은 사람의 혼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쓰이고 있다. 굿거리장단, 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들며 전후가 전삼후각이 뚜렷하며 마지막 맺음에 반드시 “궁”으로 하여 준다는 데 있겠다. 살풀이는 장단을 맡아치고 들이치고 하는데 따라 평살풀이, 동살풀이, 격음살풀이, 안춤반 살풀이로 나눌 수 있는데 동살풀이는 평살풀이를 맡아서 푸지게 잘 만들어 치는 장단이고 격음 살풀이는 처음에 맺고 풀어주고 하는것으로 치는 장단이며 안춤반 살풀이는 궁을 4 박만 올려 주는 것이다.

㉞ 평 살풀이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 ○      ① | |      | ○  
 합 합      더 궁      합따닥      더 궁

㉔ 동 살풀이

㉔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	1 1	○
	합 합	궁 더	따따닥	더궁
㉕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①	○   1 1	○
	합 합	합 더	궁 더 더 따닥	더 궁
㉖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	① 1 1	○
	합 더 더	합 궁 더 더	궁 따따닥	더 궁 더 더

㉔ 안춤반 살풀이

㉔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①   1	○   1
	합 더	궁 더 더 더	합 더 따닥	합 더 따닥
㉕	1 2 3	2 2 3	3 2 3	4 2 3
①	1	①   1	①   1	①   1
	합 더 따닥	합 더 따닥	합 더 따닥	합 더 따닥

구음으로 발 뻗어라, 쪽 뻗어라, 쪽 뻗어라로 전해진다.

④ 중중모리 장단

중모리 장단은 우리민요중 아리랑 등이 바로 중모리에 속하고, 가야금 산조에 나오는 가락이고 노래 가락에 많이 쓰인다.

㉔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	○ ○
	합 더	궁 더	궁 더	궁 궁
㉕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	①   ○	○ ○
	합 더	궁 더	합 더 궁	궁 더

⑤ 구녁놀이

구녁놀이는 놀이 자체의 이름이며 이 놀이의 주된 장단은 장구로 치지 않고 안성지방에서는 소고와 북의 중간 크기의 중북놀음에서 고흥에서는 북으로 장단을 치고 있다. ※ 안성 탐교 놀이에서 채집함.

㉔	1 2 3	2 2 3	3 2 3	4 2 3
	○	○		○

1 2 4에 있는 쿵쿵보다 소리가 없는 3의 오히려 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북을 칠때 움직임이나 힘의 흐름등에서 오는 주자의 리듬감인 것이다. 1 2의 소리를 타고 뜯기분으로 3의 공백을 처리하면 4는 가볍게 스쳐지나게 된다.

㉔  $\hat{1}$  2 3      2 2 3      3 2 3       $\check{4}$  2 3  
 ○ ○      ○ ○      ○ ○      ○ ○

1 2 3 4의 2에서 소리를 짚았기 때문에 2가 첫박보다 강하게 되므로 첫박자로 보겠는데 첫박자의 4번 계속을 매우 박력있는 진행을 가질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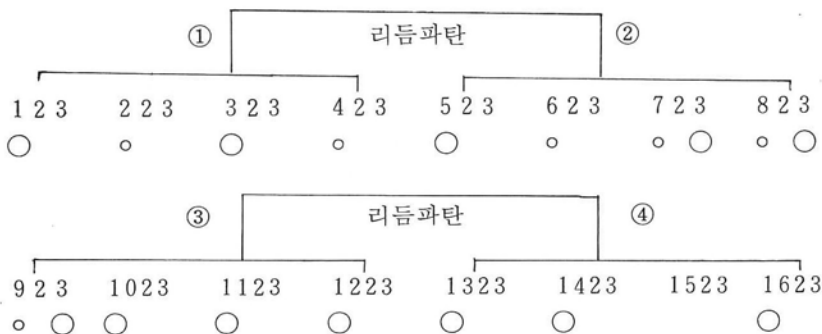
㉕ 1 2 3      2 2 3      3 2 3      4 2 3  
 ○ ○      ○      ○      ○

1의 2에서 시작한 감정을 4까지 끌고 나가려면 그의 강박이 더욱 세어져야겠다. 그래서 1에 첫박을 써서 그의 강을 더 강조해 봤다. 그러므로 1의 2가 최강점이 된다.

㉖ 1 2 3      2 2 3      3 2 3      4 2 3  
 ○ ○ ○      ○ ○ ○      ○ ○ |      ○ ○

1에서 부터 3의 3까지 떠오르는 기분으로 쳤다가 4에서 감정이 갑자기 푹 떨어지게 된다.

㉗ 리듬이 일어난다.



세쪽 4마루로 된 5박 장단을 4번 연속시킨 것이다. 그것은 두장단을 연속쳐야만이 하나의 리듬 파탄이 2번 계속되는 동안에 비로소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한 장단 가지고는 울동적인 감을 느낄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짓눌린 감정이 이에 무겁게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의 무게 때문에 3에 더 떨어지고 이것이 비례해서 4 5가 계속된다. 5에 짓눌린 것 때문에



6에는 아주 무겁게 올라간다. 따라서 7 8은 급하게 몰아 붙이게 되며 더 이상 강이 계속 될 수 없으므로 9에서 풀리려다 10에서 약간 올려챌 것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13에서 14까지 떨 힘을 점점주어 15에 에너지의 흐름이 최고도로 떠올랐다가 16은 뜬 힘이 풀리면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⑥ 자진모리

자진모리는 전라도 설장구에서 나오는 가락으로 빠른 장단의 하나이다.

㉠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①	○
	합	합	합 더	궁 따닥

1에서 짓눌린 감정은 3의 3에서 풀어감

㉡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 ○ ○	○
	합 따닥	궁 따닥	궁더더	궁 따닥

1의 최강점이며 3에 이르기 까지 풀렸다가 3에서 부터 올라갔다.

㉢	1 2 3	2 2 3	3 2 3	4 2 3
	○	○	○ ○ ○	○
	더궁더	궁따닥	궁더더	궁따닥

1 2 3에서 엇박자로 몰아 올린것의 해결이 2 3 4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1의 강약 배열이 잘 났기 때문에 2 3에 풀리는 과정이 따분하지 않으며 마지막 올라 채지는 것이 우리음악의 고유성이다.

⑦ 휘몰이

휘몰리 장단은 12쪽 장단중 가장 빠른 기분으로 휘몰아 치면된다.

㉠	1 2 3	2 2 3	3 2 3	4 2 3
	①	①	○	○

음색적 변화로 1에서 짓눌린 감정이 2에서 풀리려다 점점 몰아 올라가며, 3의 휴지부의 감정이 올라갔으므로 4에 급한것은 물론 최종 강이 되는 것이다.

㉡	1 2 3	2 2 3	3 2 3	4 2 3
	①			○

1에 약이 점점 몰아올려 4가 최강점이 되는데 2 3의 공백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4의 최강점까지 감아가는 느낌이 나는 것이다.

㉔  $\hat{1} 2 3$        $\bar{2} 2 3$        $\bar{3} 2 3$        $\check{4} 2 3$   
 ①                       $\bar{1}$                       |

1에 짓눌린 것이 2에 최고도로 올라치며 3의 휴지부는 감정적으로 1의 짓눌림보다 더 뚝 떨어졌다. 급히 4에 살짝 건들이게 된다. 지금까지 적은 것이 3쪽 4박 장단인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섯박(18쪽 장단)인 염불 도도리가 있고 열박장단인 반세림(진쇠가락, 진양조)가락 등이 있다. 여기에서 다른 가락은 지면관계상 약하고 용인지방에서 이루어진 진쇠가락에 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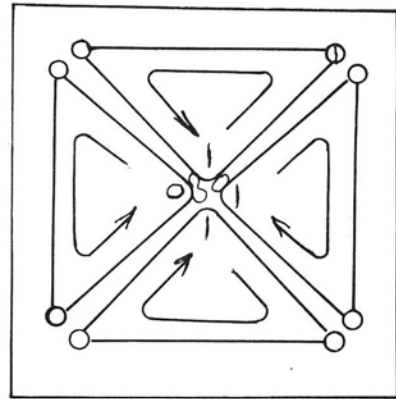
#### IV. 용인지방의 민속가락

우리나라 전반의 모든 가락이 그렇듯이 무속과 연결이 안된 가락이 없고 또 우주조화와 자연질서의 증감관계속에서 가락이 구성이 되어 있다.

중모리장단은 바로 세마치장단이 4개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려는 점맥에서 우주자연의 理法의 축소로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보기로 한다.



(그림 1)



(그림 2)

사람이 똑바로 하늘을 향해 서 보면 어딘가 모르게 기울어진다. 바로 우측 앞으로 이루어 짐이다. 바로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 바로 ①(합) 장단이요, 음

과 양이 만나는 것이다. 이로써 바로 좌측으로 쿵하고 다시 똑바로 온다. 이것이 바로 뒤쪽으로, 다음은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한다면 바로 우주의 四詩인 4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주와 인간과 땅과의 만남속에 集이고 왼쪽으로 기울면 바로 해가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2)를 보면 즉 합장단에서 풀려져서 12박과 4쪽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질서중 하나인 12계절과 4계절을 나타내는 것이요, 인간으로 볼때는 4지의 몸체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질서의 운행의 조화가 바로 우리 가락구성의 특징인데 이는 무속이라는 굿형태에서 이루어지고 또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용인 지방의 진쇠 또는 반세림은 무속에서 많이 쓰이는 독특한 가락이다. 쇠가 주동이 됨으로써 「진쇠」라고 호칭이 불리우나 무속악기 전반에 어우러 짐으로써 다른 어느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가락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체보한 「진쇠」 가락을 옮겨 보기로 한다.

1 2 3	2 2 3	3 2 3	4 2 3	5 2 3	6 2 3
⊙	○		○		⊙
합	궁	더	궁	더더더	구궁
7 2 3	8 2 3	9 2 3	10 2 3		
○		○			
궁	더	궁	더 더더		

(설명) 1에서 集이되어 다가 2에서 풀리는듯 하다. 3에서 다시 맺어지고 4에 풀린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5에서는 체편의 기운과 흐름이 죄여 올리다가 6에 쿠궁하며 풀어진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가락은 神과 人間과의 접신이 되면서 무녀의 춤사위속에 바로 神집힘이 나는 것이다. 이 진쇠 가락의 특성은 무속의 전반이 그렇듯이 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쇠소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도구으로써 영계에서 쇠소리를 가장 잘 듣는다는 것이다.

10박 30쪽의 진쇠는 바로 10이라는 박에서 우주와 十方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十方은 주역의 팔괘인 八方에 중앙과 하늘을 합한 기운으로 우주진리 당체를 나타냄이다. 바로 우주진리 당체의 조화속에서 天地人의 3체를 접맥해서 神과 人間을 合一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인데 경기 지역중 독특한 경기도 당굿의 가락이다.

또 하나의 특색은 10박의 진쇠 가락은 지형적인 특성이 감미 되었음을 본다. 즉 경기도 용인 지역이 한반도를 놓고 볼때 중앙에 위치한다. 그러므로써

중앙의 지역적 특색으로써 가락자체가 경상도지방의 빠른 가락과 전라도지방의 다변화될 가락과 달리 규칙적인 가락으로써 보인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경기 도당굿과 함께 인간의 혼과 神을 연결하는 神命으로써 경기도의 특성인 지역적 지연적인 위치가 우리 가락을 이루어 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락은 우주조화의 소리요, 인간의 호흡과 일치하므로 한국의 가락은 자연의 소리이며 인간의 맥동이다.

김 원 흥(성봉)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졸

원불교 용인교당 교무

한국 전통예술선양회 운영위원

한국·민속예술원 하회가면 연수원

##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鄉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鄉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꿈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詩)

바 람戀歌

박 상 돈

아우도 나를 기다리지 말고  
아우도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진실한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을 매어두지 않는 것  
미움은 긴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나느니  
그대여  
그대의 고적한 뜨락에  
나 한 송이 꽃으로 떠오르는 달  
한 줄기 바람으로 문득  
그대 창(窓)을 스쳐 가리니  
내 그리움의 언덕에서  
홀로 노래 부르면  
그대 또한 한줄기 바람으로  
말없이 가슴을 스쳐 지나라.  
미움으로 물들지 않고  
권태롭지도 않은  
그리하여  
오래도록 변치않는 푸른 사랑은  
늘 아쉬운 바람과도 같아야 하리니  
아우도 나를 기다리지 말고  
아우도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 수 필 >

## 가 을 隨 想

박 상 돈

아침 저녁 옷깃을 스며드는 바람이 계절의 바뀜을 예고하는듯 제법 쌀쌀하다.  
멀리 가까이, 어느덧 산야는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다.

또 다시 저무는 한 해.

그 덧없는 세월의 물살 위를 얼마남지 않은 나뭇잎이 수직으로 흘러 내린다.  
낙엽.

이른 봄, 우주의 신비한 섭리로 존재의 축복을 받아 한 여름내 주어진 바를  
다하고 때가 되면 미련없이 가지를 떠나는 나뭇잎.

그 답답한 모습이 무상하기는 하지만 道를 거역하지 않는 순종의 의도가  
오히려 가상하다.

해마다 되풀이하여 보고, 거듭 생각되는 일이지만 자연의 변화와 법칙은  
참으로 오묘하리만큼 질서정연하여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노자(老子)가 이르기를 道란 한정없이 넓고 큰 것이어서 실체가 없다고 한다.

비록 실체가 없어 공허하다고는 하나 전혀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완전한 무(無)가 아니라 천지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일정한 조화(調和)  
속에 운행시켜 나가는 테두리라고나 할까?

이 세상에서 영원(永遠)한 것이 있다면 영원이란 단어 자체와 그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우주뿐일 것이다.

우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자연의 순리(順理), 즉 도를 벗어나  
지않고 그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롭지 못해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과 악(惡)들은 바로 순리를  
따르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공존하지 못하는 체로 남보다 내가 앞서고자 하다 도리어 뒤로 밀리고, 남  
보다 부귀롭고자 하는 욕망이 도리어 스스로를 빈천하게 만들며, 타인보다 권  
세롭고자 애쓰다 그 힘에 눌러 자신을 망치게 됨은 다 도를 거스른 데서 오  
는 인과응보이다.

내 나뭇대로의 생각이기는 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

도 있고, 가장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으며, 가장 현명할 수도 어리석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것 같다.

자연이 비록 아름답다고 해도 자에 넘치는 인간의 마음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으며, 자연이 아무리 포용력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버려 남을 지킬줄 아는 인간의 희생심만큼 선하지는 못하고, 지난 것, 범상한 것을 헤아려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거나 처신하는 인간의 슬기로움은 아무것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흉물스럽고 못생긴 동물이 있다해도, 개인의 작은 권력을 내세워 횡포를 자행하는 사람의 행동만큼 추한 것이 없고, 아무리 미련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가차없이 상대를 매장시켜버린 결과로 자신마저 몰락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인간만큼 사악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은 없으리라.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존재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일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보석처럼 빛나며 오래 갈 것같은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하게 변질되고 가장 우뚝한 권좌도 때가 되면 주인이 바뀌게 마련이다.

그러함에도 천만년을 살 것처럼 분수에 넘치는 부를 쌓아 향락을 일삼거나 도에 지나친 욕망으로 명예와 권력을 탐닉하다 패가망신하는 행동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칭하는 인간들의 얼마나 큰 우둔함인가?

떳떳하지 않은 부는 청빈함만 못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지키지 못해 물의(物議)를 빚는 힘은 허약함만도 못하다.

사람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유창한 언변의 능력보다도 더한 의의 낙엽처럼 순리를 거스르지 않을 줄 아는 마음가짐이다.

나만의 안일을 찾기전에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나의 웃음과 기쁨을 만들기전에 남의 눈물과 슬픔을 돌이켜 보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 타인의 불행을 헤아려 생활하는 것이 인간의 도(道)일 것이다.

또한 자기 혼자만의 삶보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 억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는 삶이 순리에 맞는 생활일 것이다.

이제 내게도 저 나뭇잎처럼 나의 일상에서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인간의 집착은 보는 이의 가슴에 혐오감을 주는 법.

내가 떠날 때는 저 낙엽과로 같이 홀연히 떠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나기 이전의 나로 돌아갈 때엔 주위에 아무 미련이나 부담도 없이 담담히 떠나는 나이고 싶다.

## 東 西 南 北

石 岡

「소가 東쪽을 向해 서있다면 꼬리는 어느쪽을 向했을까?……」 어린아이들  
 몇이 놀다 수수께끼로 물은 말이다. 當然히 西쪽이라고 해야 答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答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다시 正答을 거듭 묻  
 게된다. 이때 몇몇이 고개를 개웃거리는 것을 보더니 正答은 西쪽이 아니라  
 땅쪽이야……하면서 무척 재미나 나는듯이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다. 소의 꼬  
 리는 땅쪽으로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수께끼는 間或 어른들도 하는때가 있다. 勿論 童話 속에서나 있  
 을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이는 暫時나마 霧圍氣를 웃음으로 이끌려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수수께끼는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東西南北의 方向에 關해서는 이렇듯 어린이들의 수수께끼로부터 어른들이  
 살아가는 日常生活에서 때로는 重要的 目標가 되는때가 있음은 우리가 다 아  
 는 事實이다. 한가지 例를 들면 登山을 가서든가 或은 어느 地域의 어떠한 調  
 査研究를 爲해 踏査를 갔을때 우선 궁금해 하는것이 있다면 東西南北의 方向  
 일 것이다. 하기가 南쪽이든 北쪽이든 한쪽 方向만 알면된다. 海外로 旅行을  
 갔거나 公務 또는 建設事業 等に 從事로 外國에 갔을때도 鄉愁에 젖어 家族  
 을 그리며 故國의 方向을 알아 보려고 할때도 自然 東西南北의 方向을 먼저  
 알아보게 되는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밖에 文學을 통해서나 平素 使用되고 있는 生活속의 낱말 가운데에도 이  
 를 引用한 것이 許多이 있다. 卽, 東問西答, 東家宿西家食, 東. 西. 南. 北風,  
 東. 西. 南. 北向, 東奔西走, 東. 西. 南. 北端, 東軒, 東. 西. 南. 北部, 東  
 床, 東西古今, 東西不辨, 東閃西忽, 東征西伐 等 其他는 略하기로 하고

여기서 外國인 卽, 이웃나라 日本國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기로 한  
 다. 他國의 이야기를 하는것이 좀 안된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나 興味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몇字 써보기로 한다.



日本國의 國技라고 하는 “스모” 卽, 우리 말로 하면 “씨름”에 關한 이야기다. 日本國의 씨름 “스모”는 勝負의 種類가 우리나라 씨름과 거의 같고 다만 한가지 둥근 금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기만 해도 금안에 있는 者가 勝으로 되는것이 다르다 하겠다. 興味롭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卽, “스모”를 할때 兩쪽에서 選手가 씨름판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方向에 關해서이다. “스모”는 어느地域 어느 場所에서 行하든 選手의 對陳方向을 만드시 南과 北으로 한다. 日本이 帝國主義에서 民主主義國家로 되는 過程에서 모든 制度의 自由化에 따라 이의 方向도 自由로이 하기 爲해 南北의 制限이 없이 하게됐는지? 近來의 實情을 確認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變함이 없는것으로 믿고 이야기를 繼續하기로 한다.

내가 어렸을때 日本이 侵略하고 있던 倭政때 일이다. 어느 日本月刊誌의 記事에서 본 이야기의 한 토막인데 이것 亦是 어린이들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다. 「스모를 하는데 왜? 南쪽과 北쪽에 자리를 잡고 하게 됐는지 그 理由를 말해 봐!……」하고 물었다. 얼른 對答을 못하자 그럼 내가 말하지…… 하면서 하는 말이 「皆 見に 來たから」 때문에 이말은 「南に 北から」로도, 되므로 南과 北으로 定하게 된거야……」 結局 이 말은 우리 發音으로써 두 말이 다(미나미니기다까라)라고 말한게 되며 그 뜻은 前者는 「다(皆) 보러 왔기때문에」이고 後者는 「南에 北에서」라는 말이 된다.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日本語를 아는 사람에게든 이 이야기가 興味롭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잘 理解가 되지 않을것 같아 遺憾스럽다는 人事를 表해 마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多少 童話에 치우쳐 比喻한 말이돼 너무했다고 생각하면서 東西南北에 關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이 나는게 있어 이 機會에 한마디 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요즘 各 新聞社에서 發行하는 日刊紙에는 집집에 配達될때 每日같이 16切紙 크기 程度로된 開業案内 事業案内 其他 月賦販賣商品 等の 廣告紙가 挿入되어 돌리는것이 있다. 그 內容은 略하기로 하고 이를 紹介하는 業所라든가 場所等 그 位置를 略圖를 그려 案内文 끝이나 或은 옆等に 넣어 印刷를 했는데 그 略圖의 그림을 보고 어디쯤인가?……하고 한동안 그 位置를 찾아보면 때로는 머리가 멍해지기까지 한다면 좀 보태어 한 말이 될지모르나 何如든 쉽게 그 位置를 알아보기가 힘들때가 있다. 勿論 코끼리의 그 큰 몸뚱이에서 한 部分 만을 그린것과 같은 點에서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東西南北의 方向을 쉽게 알수없다는 點에서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地圖에 標示되고 있는 南北標示 같은것을 꼭 넣었

으면……하는것은 아니고 그림의 上部가 반드시 北쪽이 될 수 있도록 그렸으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그것쯤이야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問題 하나라도 온 國民이 一致하게 할 수 있다면 서로가 便利함은 勿論 모든 生活의 方式이 科學化되어 國民의 水準도 높일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서이다.

生活의 科學化라고 하는것은 科學이란 말에 무척 어렵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런 理由로는 自己가 科學에 關한 工夫가 없는것을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誤解하고 있는것은 學術的인 科學을 생각해서이기 때문이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科學化는 모든것을 正確하게 合理的으로 또는 體系的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地圖나 地籍圖等은 모두 윗쪽이 北쪽으로 그려져 있는것을 보면 理解할 수 있다. 特히 軍隊에서 作戰을 할때도 이러한 統一이 없다면 큰 蹉跎이 생기게 된다. 結婚式, 回甲宴 其他祝賀宴 또는 公共 行事 등의 案内狀 請牒狀에 그린 略圖도 또한 같은 事例이다. 또 한가지 指摘한다면 表題와는 좀 다른 이야기 이기는 하나 案内文 內容에서 小生이 今番 무슨무슨 事業을 다음 場所에서(中略) 많은 利用과 指導鞭撻을 바랍니다. 해 놓고 끝에가서 人事하는 사람의 小生이 누구라는 것을 卽,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商號程度만 쓰고 만것이 評多한 것은 東西南北을 알아보기 어려운 略圖보다도 더욱 답답하고 廣告를 하는 主人公으로서의 人事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 機會에 그 失禮됨을 認識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기를 促求하고자 한다.

## 書藝를 하고싶은 初歩者들을 爲한 小考

漁樵山人 元 倉 植

글을 알면서 글씨를 잘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줄 안다. 그러나 잘쓰고 싶다고 잘써지는 것이 아니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면 잘쓰고 싶지도, 잘쓰려고 하지도 않고 잘써질수 있을까? 글씨는 역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서만이 얻어질 수 있으며 하면 반드시 되는 것이라는 信念을 가져야 될 줄 안다.

나 自身도 겨우 成字를 하는 初歩者이면서 남의 말을 하는것 같지만 내가 이 글을 쓰는데는 나와 같은 初歩者들이 함께 研究하고 努力해보자는 생각에서 이다.

그 생각이란 글씨를 모두가 잘 쓸수는 없겠지만 잘쓰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먹을 갈며 墨香을 즐기며 종이 퍼놓고 自身이 쓸 글씨의 모양을 머리속에 構想하면서 作品에 대한 골돌한 思索에 잠길때 글을 쓰는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되는 것이다.

每事가 호기심에서 부터 始作된다고도 生覺해 본다. 글씨를 잘쓰겠다고 하는이가 어느 名筆을 닮아보겠다는 好奇心이 없이는 글을 잘 쓸수 없다고 生覺이 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바와같이 글의 內容이 좋아도 글씨가 서투르면 그 內容을 잘 살피지 않고 疎外視하는 境遇도 없지않으니 글씨는 잘써야 글을 돋보이게도 한다는 點을 아마 모두가 느꼈을줄 믿는다.

글씨에는 붓글씨도 있지만 펜글씨를 비롯 鉛筆이나 其他의 筆로서 쓰는 境遇가 더 흔하다.

그러나 亦是 글씨의 眞味와 妙得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毛筆이 아닐수 없다.

毛筆은 質도 多樣하고 種類도 많지만 쓰는 사람 쓰는 손에 따라 各其 相異

한 모습을 나타낸다. 勿論 點과 劃의 劃法과 劃을 結構하여 成字를 하여보면 體本이 같고 크기와 造形을 指導하는 先生이 같아도 써놓을 글씨는 똑 같을 수 없는것이 글씨이다.

그렇지만 내가 生覺하기에 글씨를 쓰려면 우선 좋은 體本을 擇해야하고 훌륭한 先生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捷徑이 될 줄 안다.

먼저 붓을 잡는 方法과 마음가짐에 依하여 붓의 性能에 依하여 다른 글씨가 되기도하기 때문이다.

各自의 素質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初步者들에게 所重한 것이라면 먼저 잘쓴분의 흉내를 내는것이 自得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先生과 體本이 重要한 것이다.

또 한가지 글씨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고 보기좋아야 우선은 잘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남이 잘 썼다고 느껴지는 自體가 書藝이고 잘 쓴 글씨임에는 틀림이 없다.

初步者들이 共通으로 느끼는것이 劃法을 익히기도 前에 結構를 慾心내는 경향이다. 慾心을 내보아야 天才인 경우 글씨는 쉽게 잘 써질지는 모르나 단번에 名筆이 되는 法은 없는것이 글씨이다.

우선 精誠이 있고 敬虔한 마음으로 眞實된 姿勢와 마음 가짐과 態度로 써야만 글씨는 늘고 成長하게 됨은 傲言이 不要이지만 點과 劃法을 하나 하나 所重하게 익혀 基礎부터 배워나가야 된다고 믿는다.

法이라고 말하는것은 數千年의 歷史를 가진 書體들을 말하며 그들이 共通的으로 가진 筆致와 書體를 말하는것 아닌가 生覺해 본다. 例를 들어 馬蹄蚕頭의 一字의 굵는 劃이나 永字八法の 各劃의 劃法을 보더라도 歷代의 名筆들이 書法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劃을 하나 하나 法에 依해 배우고 이것이 完成되면 結構를 배우고 研究해야 좋은 글씨가 된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結構를 하는데는 勿論 보기 좋게 構成을 해야하나 보기 좋기 爲해서도 創作보다는 法帖에 依하여 써보는것이 가장 빠르게 잘 써진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분이 自身の 글씨를 惡筆이라고 自評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은 글씨가 되느냐고 물어온 일이 있다.

나는 法帖에 依해서 써보라고 했더니 法帖들을 보아도 글씨의 特徵이나 쓰는 方法을 發見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不得已 글씨를 쓸때 行과 伍라고 해도 無妨한 말인지 모르나 間을 一定하게 굵고 그안에 반드하게 글字를 앉히고 그 中心을 한字 한字 뿐 아니라 全體가 그 틀안에 中心을 맞추어 써보

라 했더니 그 후 그것만 是正하여도 自身이 보기에 매우 보기가 좋더라는 것이다. 그 후 한글짜 한글짜의 劃의 間隔을 고르게 하고 글짜의 左右와 上下가 꼭 고르고 妥當하게 크고 작은 것 없이 써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매우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후에 만날때마다 눈에 띠는대로 충고해 주었더니 조금씩 나아졌다 하며 그런대로 그가 말한 惡筆의 틀을 벗을수 있었다고 한다. 自身도 말하지만 自己의 이른바 惡筆을 矯正하려는 그의 意志와 굳은 뜻이 섰을때 남의 글씨 하나 하나를 茫然히 보지 않았을것이며 그렇게 執着力있게 工夫하는 마음에서 글씨를 배울때 글씨를 보는 눈이 開眼이 되었을줄 믿으며 남의 글씨를 보는 눈이 뜨였기에 그 글씨를 본받을수 있었다고 生覺된다.

글씨는 눈으로 보고 쓰지만 나타나는 造形美는 書藝에 深醉해 있는 사람뿐 아니라 無識한 사람이라도 보면 잘했다는 느낌을 주는 藝術임에 틀림이 없다.

모름지기 모든 工夫는 熱心히 心血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先人들의 成功을 自身の 스승으로 삼는 便法도 있을법 하다고 하겠다. 眞實을 探究하는데 刻苦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될 줄 안다.

또한 筆力이란것이 있다. 글씨가 익숙해 보이는 것이 곧 筆力의 差異인 것이다. 아무리 才操가 있어도 글씨만은 才操만으로서 하루아침에 筆力을 낳을 수는 없다. 筆力은 努力과 刻苦의 訓練에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工夫하는 秘訣은 多讀多書인 것이다. 많이 읽는데서 眞理를 깨달을 수 있으며 많이 써야 名筆의 境地를 이루는 것이다. 모양이 비록 體本과 똑같아도 같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것이 藝術인 것이다. 틀에 박은 造形物인 印刷物같은 것이 손에 의하여 솜씨로 만든 造形物과 다르게 보이는것처럼 같은形 같은 크기 같은 글씨가 쓴 사람의 손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게 마련이다.

新羅以後의 글씨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金生, 崔致遠先生을 비롯 韓石峰, 金秋史 等 無數한 名筆의 글씨가 傳해지고 있으며 漢文의 本國인 中國의 글씨도 王羲之, 歐陽詢, 顏眞卿, 豬遂良, 虞世南 等과 六朝의 名筆들의 遺蹟은 勿論 近世까지의 많은 名筆들이 傳해지고 있다. 勿論 우리로서 優劣을 가릴 境地도 아니고 모두가 不世出의 名筆들인 것이다. 各其 다른 特徵이 있고 特色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劃法과 結構法에 있어는 大同小異 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楷書, 行書, 草書, 隸書, 篆書 等 各樣各色的 글씨가 한결같이 한 劃의 放心도 없고 矯蔓이나 輕率함이 없이 精誠되게 쓰고 있어 쓰느이의 魂魄이 깃들어 있어 數千年 아니 數百年이 지난 오늘날 科學이 萬能을 다하는 이 時代

漢詩鑑賞

에도 그 솜씨를 따르기 힘든 不朽의 名作을 남기고 있으니 이로볼진대 名筆이 時代의 古今에서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많은 逸話, 傳記에서 보듯 偶然이 된 것이 아니라는 共通點을 認識할때 잘쓰고 싶으면 研究하고 努力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다음에는 名筆들의 法帖中에서 特異한 點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智慧를 얻는데 도움이 或 될가 하는 것들을 列舉해 보려 하며 己巳新年을 맞이하여 書藝를 愛護하시는 뜻있는 분들과 함께 同好의 情을 나누고 싶다.

적은	한	神	못	흠	顯	積	積
흐름	발	明	을	을	步	善	土
쌍	작	을	이	쌍	無	成	成
지	을	스	루	아	以	德	山
않	스	로	니	산	至	而	風
으면	쌍	로	교	을	千	神	雨
면	지	연	룡	이	里	明	興
江海	않	으며	이	루	不	自	焉
를	지	며	생	니	積	得	積
이	않	聖	기	비	小	聖	水
를	을	心	매	바	流	心	成
이	이	을	善	람	無	備	淵
를	를	갖	을	이	以	焉	蛟
없	수	춘	쌍	일	成	故	龍
느	없	다	아	어	江	不	生
니	으며	그	德	나	海	積	焉
라	며	러	을	고			
		므	이	물			
		로	루	을			
			니	쌍			
			아	아			

積土成山 風雨無私 積善成德 神明自得 聖心獨悟 不積跬步 無以至千里 不積小流 無成江海

己巳九月上詒 漁樵山人

## 醫窓漫筆〈其二〉

### 「神農本草經」

雲谷 金 東 明

本草가 漢醫學의 治療面에 있어서 重要的 位置에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本草하면 흔히 李時珍의 本草綱目を 말하나 實인즉 무엇보다도 먼저 神農本草經을 들어야 할 것이다. 梁啓超와 姚際恒等の 考察에 依하면 이 本草經이 東漢때 神農氏의 託名으로 著述한것 이라하였다. 其後 梁의 陶弘景의 修訂神農本草經이 나옴으로 비로서 其面貌를 完全히 갖추었다 한다. 東漢은 西紀 25年頃이고 梁은 西紀 502年頃이니 距今 約 1940年 乃至 1463年間の 作品이다. 新農本草經의 意義는 本草로써 最古의 文獻이며 藥效의 記錄이 比較的 正確하다는 點에 있을 것이다. 張仲景이 古訓(素難經)과 衆方(伊尹의 湯液等)을 널리 選擇하였다고 하고 胎臚藥錄等을 參酌하였다고 其著傷寒論序文에서 말하였다. 伊尹의 湯液本草나 胎臚藥錄等은 傳하여 오지 않으므로 正確한것은 알 수 없으나 前記 神農本草經과 一脈相通한 것이라는 理由로 歷代 많은 學者나 臨床家들이 主로 本經研究에 沒頭하여 왔었다. 神農本草經 外에 해야될 수 없을 程度로 許多한 本草書가 있다. 그 中에 잘알려진 것과 생각나는 것 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唐朝 孟詵의 食療本草와 陳藏器의 本草拾遺, 宋代에 蘇頌의 圖經本草, 唐愼微의 大觀本草, 具宗奭의 本草衍義, 元朝에 王好古의 湯液本草와 朱丹溪의 本草衍義補遺, 明代에는 盧子은의 本草乘雅, 李仕材의 本草通元, 薛立齊의 本草發揮, 張景岳의 本草, 李時珍의 本草綱目, 龔廷賢의 藥性歌, 清朝에는 朱謨의 本草彙言, 張璐玉의 本草逢源, 陳修園 張隱庵 葉天士等の 三家註本草, 徐靈胎의 本草百種錄, 黃坤載의 長沙藥解, 趙學敏의 本草綱目拾遺, 汪昂의 本草備要, 吳儀洛의 本草從新, 楊時秦의 本草述鈞元, 中華民國 初에는 秦伯未의 本草, 唐容川의 本草問答, 時逸人의 中國藥物學, 陳存仁의 中國藥物大辭典, 胡安邦의 藥物大辭典, 譚次仲의 中藥性類概說等이 있고, 日本에는 鈴木眞海의 日譯本草綱目, 吉益車洞의 藥徵, 尾台榕堂의 重校藥徵, 小泉榮次郎의 和漢藥考, 情水藤太郎의 國醫藥物學等이 있다.

韓國人著로는 李朝世宗時 文官醫官撰集의 鄉藥集成과 方 許浚著 東醫寶鑑의 湯液이 있고 近代 杏林書院版의 最新國漢藥物學이 있을 뿐이다. 上記의 것 中에서도 注意를 喪失치 않고 仲景傷寒金匱方의 解釋用 本草라고 할만한것은 王孟英의 말대로 本草乘雅와 清朝 鄒澍의 本經疏證이 있을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이나 神農本草經을 가지고 到底히 其秘旨를 完全히 解明할수가 없다.

回顧컨데 本草의 發展은 原始時代 藥物의 一味로 一病을 治療한 經驗에서 一味로 數病을 또 나아가서는 二味, 三味 或은 其以上 配合으로 一病을 治療하게 되는 經驗을 갖게 되었다. 本草書도 이런式으로 卽 藥性的 記載가 簡略에서 複雜한 것으로 進展하였다. 例로 品種이 360品에 不過하고 藥性的 記載도 極히 簡明한 神農本草經에서 陶宏景의 眞誥本草經註의 720品을 거처서 品種 1800餘種을 收錄하였으며 藥性까지 混雜하게 記載가 된(一品 8-9-10疾) 李時珍의 本草綱目으로 浩繁한 大本草로 發展하였다. 卽, 一品(一味)으로 治一病(疾)하든 것이 一味로 治數病하는 式의 本草로 變貌하여 버렸다. 마치 한가지 商品만 販賣하던 專門店이 一躍 雜貨의 百貨店으로 擴張과 發展이 된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이 眞情한 發展이며 便利한 것이 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本草의 藥效(性)의 純正面으로 볼때에는 退步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옛으로 돌아가자는 運動이 일어 났었다. 卽 藥效의 純正한 것만 간추려서 記憶하기 쉽고 簡便하고 臨床의 價値가 높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다. 本草綱目拾遺→本草綱目→本草備要(或은 本草從新)→藥性歌(龔廷賢의 것→黃道淳의 것)로 簡便한 것으로 다시 縮練된 셈이다. 勿論 李仕材의 醫學必讀의 本草, 翟冷仙의 藥物初階, 雷公의 主治指掌, 潘宗元의 分經藥性賦 等の 簡明하게 된 것도 있다. 더욱이 上記 龔廷賢의 壽世保元이나 萬病回春의 藥性歌가 韓國人 黃道淳에 依하여 方藥合編의 藥性歌로 變貌하여서 愛讀하여 내려왔다. 이렇게 本草의 發展變貌가 있었으나 純度가 높은 神農本草經으로도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는판에 混濁하여진 또는 百貨店式의 本草綱目等으로는 이 萬古의 神才(傷寒金匱方)을 더욱 풀지 못할 것은 明若觀火이다. 어찌 名色 漢醫學徒의 一人으로써 限하지 않으랴! (1965.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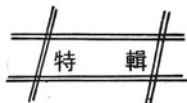


### 龍仁李氏의 原流 <3>

○ 일(諱 : 鎰 23世) 중종 33년(1538) 용인 포곡면 신원리에서 낳으시고 명종 13년(1558) 무과급제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에서 해관(解官)되어 집에 계시다가 선조 16년(1583)니탕개(尼湯介)가 북변의 경원(慶源)을 침공(侵功)하자 경원부사(慶源府使)에 특배되어 주야로 달려가 임지에 당도했으나 종성(鍾城)마저 포위되었다. 방비에 책략을 다한 결과 드디어 번호(蕃胡) 스스로 철수하였다. 선조 17년 니탕개가 다시 2만여명의 대군으로 회령(會寧)을 침공하자 회령부사로 발탁되어 그 소굴을 습격하여 소탕하는등 크게 공을 세웠다. 선조 19년 북병사(北兵使)에 오르시고 동 21년 대군으로 시전번호(時錢蕃胡)의 본거지를 거쳐 그를 항복시키므로서 비로서 이때부터 북변이 무사안정케 되었다한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라서 이무렵 조산만호(造山萬戶)였던 이순신(忠武公)이 군법에 저촉되어 중죄로 다스리게 되었을때 평소 그의 충용(忠勇)함을 아시는 공께서 이를 계청(啓請)하여 백의종군케 한바 있고 또한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증보(增補)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렇듯 공은 당시 국가의 장성(長城)과도 같이 조야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 선조 25년(1592) 임진난(壬辰亂)이 나자 순변사(巡邊使)가 되어 상주(尙州)에 이르렀으나 판관(判官)만이 남고 목사(金澥)이하 군사들 마저 도피하고 없는 상황에서 신무기인 조총(鳥銃)을 가진 수만(數萬)의 왜군(倭軍)을 맞아 불과 수백의 오합지졸(烏合之卒)만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어 결국 패하게 되었고 충주에 이르러서도 도순변사 신립(申稜)장군 휘하에서 싸웠으나 역시 패하고 서울에 이르렀다.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李陽元)의 휘하에서 독군(督軍)하면서 직접 적의 수급(首級) 30여수를 베는등 분전하여 선조(宣祖)로부터 어마(御馬)의 하사(下賜)와 아울러 장유(獎諭)까지 받았다. 그 후 임진(臨津)에서 싸우고 평양(平壤)에 당도하니 공이 왔다는 소식에 평양 시민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평양의 하류강가(江津)을 맡아 적과 싸웠는데 이곳에서는 적도 후퇴하고 말았다. 그후 평양이 함락되어 북쪽길이 막히

자 공은 황해도로 들어가 의병을 모집하고 선조가 계시는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에 들어갔다. 그때 정세는 민심이 흩어져 조정의 명령이 통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적에게 붙어 부역하는가 하면 수령들은 모두 도망쳐 없었다. 공이 고유(告諭)하니 도망간 사람들도 모이고 민심도 차츰 평정되었다고 한다. 그때의 공으로 동변방어사(東邊防禦使)가 되어 평양이북을 토적(討賊)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려 명(明)나라 천자(天子)로부터 백금 20양(兩)의 상금까지 받았다. 이듬해 평안병사(平安兵使)가 되어 명나라 원병(援兵)과 함께 전봉(前鋒)으로 평양을 수복하였고 이어 북도순변사가 되었다. 북도(北道)의 정세도 이미 민심이 떠나 적에게 붙어 부역하는 자가 많았고 심지어 왕자(王子·臨海·順和君)와 여러 종신(從臣)까지 잡아 왜적에게 넘겨주는 판국이었으나 공이 들어간 다음에는 매사가 별탈없이 순조롭게 평온을 되찾았다. 그후 3도순변사(忠全慶三道巡邊使)가 되어 순천(順天)에서 적로(敵路)를 차단하고 아울러 적의 준동을 막았고 다시 북병사가 된 다음 돌아와서는 자헌대부(資憲大夫) 무용대장(武勇大將)이 되시고 개성유수(開城留守)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겸 지훈련도총관(知訓練都總管) 포도대장(捕盜大將) 군기제조(軍器提調)에까지 영진(榮進)하였다.

그간 공은 무과급제후 선전관(宣傳官)을 위시해서 7부사(府使) 2첨사(僉使) 전라좌수사 병사(兵使) 평안병사 두번에 걸친 함경남북도병사를 역임하였고 선조 33년(1605) 남병사가 되었으나 다음해 살인사건의 혐의로 소환되어 상경중 병으로 정평(定平)에서 향년 64세로 하세하였다. 그후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이 증직되고 경종(景宗)때에는 장양(壯襄)의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이렇듯 공은 임란(壬亂)을 전후하여 한평생을 무장으로서 국가 병란(兵亂)에 크게 공을 세웠지만 악의(惡意) 찬 당시 일부 당인(黨人)의 모함으로 불운(不運)을 겪어야만 했다. 공의 성품은 무인답게 매우 강직 과감하시고 남다른 판단력을 가진 분이었으며 현재 육군사관학교박물관에는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등이 소장 전시되고 있다.



## 農家月令歌

(本歌는 陰歷으로 基準한 것임)

憲宗때의 丁若鏞의 둘째아들 丁學游의 著作이라고 알고있음. 月令體로는 高麗歌謠의 動動과 李朝의 觀燈歌 民謠로 달거리 등이 있다.

### 農家月令歌

天地 肇判하매 日月星辰 비치거다  
日月은 度數있고 星辰은 躔次있어  
一年 三百六十日에 제 度數 도라오매  
冬至 夏至 春秋分은 日行을 추측하고  
上弦 下弦 望海朔은 月輪의 盈虧로다  
大地上 東西南北 곳을 따라 틀리기로  
北極을 보람하여 遠近을 보람하니  
二十四 節候를 十二朔에 分別하여  
每朔에 두節侯가 一월이사이로다  
春夏秋冬 來往하여 自然히 成歲하니  
堯舜같은 착한임금 曆法을 創制하사  
天地를 밝혀내어 萬民을 맡기시니  
夏禹氏 五百年은 寅月로 歲首하고  
周나라 八百年은 子月로 新正이라  
當今에 쓰는 曆法 夏禹氏와 한 法이라  
寒暑溫涼 氣候次例 四時에 맞아드니  
孔夫子의 取하심이 夏令을 行하도다

正 月 令

正月은 孟春이라 立春 兩水 節氣로다  
 山中 潤壑에 氷雪은 남았으나  
 平郊 曠野에 雲物이 變하도다  
 어화 우리 聖上 愛民 重農 하오시니  
 懇惻하신 勸農綸音 坊曲에 반포하니  
 슬프다 農夫들아 아무리 無知한들  
 네 몸 利害 고사하고 聖意를 어길소나  
 山田水畝 相半하여 힘대로 하오리라  
 一年 凶豊은 測量치 못하여도  
 人力이 克盡하면 天災는 免하리니  
 제各各 勤勉하여 게을리 굴지마라

一年之計 在春하니 凡事를 미리하여  
 봄에 萬一 失時하면 終年일이 낭패되네  
 農機를 다스리고 農牛를 살피먹여  
 재거름 재워 놓고 한편으로 실어내니  
 보리밭에 오줌치기 昨年보다 힘써하라  
 늙은이 근력없어 힘든일은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워고 밤이면 새끼 꼬아  
 때맞게 집 이으면 큰 근심 덜리로다  
 실과나무 보곳 꺾고 가지사이 돌끼우기  
 正朝날 未明時에 試驗條로 하여보자  
 머느리 잊지말고 小麴酒 밀하여라  
 三春 百花時에 花前一醉 하여보자  
 上元날 달을 보아 水旱을 안다하니  
 老農이 徵驗이라 大綱은 짐작하니

正朝에 歲拜함은 敦厚한 風俗이라  
 새衣服 떨쳐 입고 親戚隣里 서로 찾아  
 男女老少 兒童까지 三三五五 다닐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繁華하니  
 사내아이 열날리기 계집아이 날뛰기요  
 옷놀아 내기하니 少年들 놀이로다

祠堂에 歲謁하니 餅湯에 酒果로다  
 읍파에 미나리를 무업에 걸드리면  
 보기에 新鮮하여 五辛菜를 부러하라  
 보름날 藥帛制度 新羅적 風俗이라  
 묵은 山菜 삶아 내니 육미와 바꿀소나  
 귀밝히는 藥술이며 부스럼삭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햇불켜기  
 흘러오는 風俗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二 月 令

二月은 仲春이라 驚蟄 春分 節氣로다  
 初六日 솜생이는 豊凶을 안다하며  
 스프날 陰晴으로 大綱은 짐작나니  
 반갑다 봄바람이 依舊히 문을여니  
 말랐던 폼뿌리는 속 잎이 萌動한다  
 개구리 우는곳에 논 불이 흐르도다  
 멧비둘기 소리나니 버들잎 새로워라  
 보장기 차려놓고 春耕을 하오리라  
 살진발 가리여서 春年을 많이갈고  
 목화밭 피어두고 제 때를 기다리소  
 담배모와 잇심으기 이를수록 좋으니라  
 園林을 粧點하니 생리를 兼하도다  
 一分은 果木이요 二分은 뽕나무라  
 뿌리를 傷치말고 비오는 날 심으리라

술가지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 하고  
 墻垣도 修築하고 개천도 쳐올리소  
 안밖에 쌓인 김불 정쇄히 쓸어 내어  
 불 놓아 재받으면 거름을 보태리니  
 六畜은 못다하나 牛馬鷄犬 기르리라  
 씨암닭 두세마리 알 안겨 깨어 보자  
 山菜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먹세  
 고들빼기 씹바귀요 조롱장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잇국은 미위를 깨치나니  
 本草를 詳考하여 藥材를 캐오리라  
 蒼白朮 當歸 川芎 柴胡 防風 山藥 潭瀉  
 날날이 記錄하여 때맞게 캐어두소  
 村家에 기구없어 값진약 쓰울소나

三 月 令

三月은 暮春이라 清明 穀雨 節氣로다  
 春日이 載陽하여 萬物이 和暢하니  
 百花는 爛蔓하고 새소리 各色이라  
 堂前에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花間의 범나비는 紛紛히 날고기니  
 微物도 得時하여 自樂함이 사랑흠다  
 寒食날 省墓하니 白楊나무 새잎난다  
 雨露에 憾愴함을 酒果로 퍼오리라  
 農夫의 힘든일 가래질 첫째로다  
 點心밥 豐備하여 때마추어 배불리소  
 일군의 妻子眷屬 따라와 같이 먹세  
 農村의 厚한風俗 斗穀을 아낄소나  
 물꼬을 깊이치고 도랑 밟아 물을 막고  
 한편에 모판하고 그나마 삶이하니  
 날마다 두세 번씩 부지러니 살펴보소

弱한씩 세위낼제 어린아희 保護하듯  
 百穀中 논農事가 泛然하고 못하리라  
 浦田에 서숙이고 山田에 豆太로다  
 들갯모 일찍 붓고 삼 農事도 하오리라  
 좋은씨 가리어서 그루를 相換하소  
 보리밭 매어두고 못논을 되어두소  
 들 農事 하는 틈에 治圃를 아니할가  
 울밭에 호박이요 치마 밭에 박 심으고  
 담 近處 冬菘 심어 가지하여 올려보세  
 무우 배추 아욱 상치 고추 가지 파 마늘을

色色이 分別하여 빈땅없이 심어 놓고  
 갓 버들 배어다가 개바자 둘러 막아  
 鷄犬을 防備하면 自然히 茂盛하리  
 외 밭을 따로하여 거름을 많이하소  
 農家의 여름 반찬 이 밖에 또 있는가  
 뽕눈을 살펴보니 누에 날 때 되었구나  
 어화 婦女들아 蠶農을 專心하소  
 蠶室을 灑掃하고 諸具를 準備하소  
 다래기 칼도마며 채 광주리 달밭이라  
 格別히 操心하여 냄새를 없이하소

寒食前後 三四일에 果木을 接하나니  
 円杏 隣杏 울릉桃며 문배찜배 능금사과  
 엇집 피집 도마집에 행자집이 잘사느니  
 청다래 정릉매는 古査에 집을 붙여  
 農事를 畢한後에 盆에올려 드리놓고  
 天寒白玉 雪寒風에 春色을 홀로보니  
 實用은 아니로대 山中의 趣味로다  
 人間의 要緊한일 醬담는 靜思로다  
 소금을 미리받아 法대로 담그리라  
 고추장 두부장도 맛맛으로 갖추하소  
 앞산에 비가개니 살찐香菜 캐오리라  
 삼추 두류 고사리며 고비도랏 어아리를  
 一分은 엮어 팔고 一分은 무쳐 먹세  
 落花를 쓸고 앉아 瓶술을 즐길 적에  
 山妻의 準備함이 佳肴가 이뿐이라

( 다음호에 계속 )

## 정포은을 기리며

숙종대왕 지음  
홍 순 석 옮김

### 1

천추에 드높은 그대의 절의  
내 평생토록 높이 우러르네.  
여러 임금께서 포승<sup>1)</sup> 하셨으니,  
사람들 누구나 높이 지 않으리.

節義千秋高      平生我敬重  
烈祖屢褒崇      士林孰不聳

### 2

횡설 수설 모두가 이치에 맞았고  
우뚝 뛰어나 성리학의 종주되셨건만,  
경륜하는 사업 못 다했으니,  
슬프도다, 말세를 만난 탓이로다.

橫堅皆當理      蔚爲理學宗  
不盡經綸業      吁嗟叔季逢

### 3

낙중<sup>2)</sup>에 사당이 모셔져 있으며,  
유상은 엄숙하고 맑고 드높거니,  
금패<sup>3)</sup>가 뜰에 가득 모인 때에  
승선<sup>4)</sup>시켜 한잔을 올리노라.

洛中祠屋在      遺像肅清高  
衿佩盈庭會      承宣奠一醪

1) 포승(褒崇); 칭송하고 숭배함.  
2) 낙중(洛中); 송경(松京) 즉, 지금의 개성을 말한다.  
3) 금패(衿佩);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들을 가르킨다.  
4) 승선(承宣);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를 말한다.



## 충렬서원강당기(忠烈書院講堂記)

李 廷 龜 지음

홍 순 석 옮김

선생의 서원이 송도(松都)에 있는 까닭은 고택(故宅)이기 때문이고, 오천(烏川)에 있는 까닭은 관향(貫鄉)이기 때문이며, 임고(臨臯)에 있는 까닭은 구거(舊居)이기 때문인데, 묘소 아래에만 없었다. 병자년(선조 9;1576)에 여러 선비가 의논하여 죽전(竹田)에 서원을 세우고 정암 선생(靜菴先生)을 배향(配享)하였으니, 이 땅이 두 선생의 묘도(墓道) 중간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 선군(先君)과 사인(士人) 이지(李贄)가 실로 이것을 주장한 것이었는데, 불행히도 임진년의 병화를 입어 폐허가 되었으므로 사림(士林)이 애석하게 여겼다. 구성(駒城) 한 고장은 병란에 가장 해를 당하여 10여 년 이래로 민호(民戶)가 모이지 않아서 정암 선생의 묘소 아래로 자손도 노복(奴僕)도 없고 초목(樵牧)을 막지 못하였는데, 선비들이 향화(香火)가 끊긴 것을 민망히 여겨서 의논하여 사우(祠宇)를 지었다.

을사년(선조 38;1605)에 내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되어 선생의 묘소에 참배하고 현감(縣監) 정종선(鄭從善)과 진사(進士) 이시윤(李時尹)·정충전(鄭忠傳) 등과 함께 의논하기를 ‘죽전서원(竹田書院)을 중건(重建)하여 함향(合享)하는 것은 실로 선인(先人)의 뜻이었으나 이제 힘이 없거니와, 정암선생의 묘소 아래에는 이미 먼저 사우를 세웠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럴 겨를이 없었으니, 사문(斯文)의 흠일 뿐더러 실로 우리 자손의 수치이다.’ 하고, 드디어 감영(監營 : 관찰사의 본영)에서 봉급을 받는 자가 자손 중에서 수령(守令)이 된 자를 도와, 재목으로 모으고 공장을 품사서 다섯 달 동안 힘써 일한 끝에 사우가 이루어지고, 3년 뒤에 일이 끝나니, 무릇 사우가 3칸이고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각각 2칸이며 문루(門樓)가 3칸인데 위에는 강당을 만들고 아래에는 문을 만들었으며, 부엌과 곳간도 거의 갖추어졌다. 무신년(선조 41;1608) 10월에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그해 겨울에 이시윤 등이 상소하여 편액(扁額)을 청하였는데, 임금의 특별히 어제(御製)를 내리어

충렬서원이라 하였으니, 또한 특이한 은수(恩數)이다. 묘소를 우러러 보면 혹 뽀는 듯도 하여 높은 풍도(風度)를 숭상하여 많은 선비들이 길이 의지할 데가 있게 되었으니, 평생의 소원이 조금은 퍼진 듯하다.

예전 경자년(선조 33; 1600)에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상기(喪期)가 이미 지나서도 원릉(園陵)은 오래 길지(吉地)를 잡지 못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매우 근심하여 술관(術官)들을 시켜 각각 아는 바를 비밀히 아뢰게 하니, 사대부(士大夫)의 묘산(墓山)이 귀척(貴戚)을 막론하고 다 여기에 끼였고 선생의 묘산도 그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선왕(先王)이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빠짐없이 가서 살펴보게 하되, 선생의 묘소에 대하여만은 분부하기를,

“정모의 묘가 과연 쓰기에 합당하더라도, 어찌 차마 충현(忠賢)의 뼈를 2백년 뒤에 파내게 하겠는가? 특별히 보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그때 예조판서(禮曹判書)로서 실로 이 명을 받았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감탄하였다.

내가 선군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의 손자 정공 보(鄭公保)는 육신(六臣)과 서로 친한 벗이었는데 옥사(獄事)가 일어나게 되매 공이 강개(慷慨)하였다. 공의 서매(庶妹)는 한명회(韓明澮)의 첩인데, 하루는 공이 그를 찾아가 한명회는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 누이가 말하기를,

“죄인을 국문(鞫問)하느라 대궐에 있습니다.”

하매, 공이 술에 취하여 욕하기를,

“이 사람들을 죽이면 영공(令公)은 만세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옷을 떨치고서 갔다. 한명회가 돌아와서 정모가 와서 무슨 말을 하였느냐고 물으매 첩이 죄다 고하니, 한명회가 곧 대궐에 가서 아뢰었으므로, 공이 드디어 국문당하고 적몰(籍沒)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그 상세한 것은 몰랐는데, 병오년(선조 39; 1606)에 내가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선조(先朝)의 실록(實錄)을 중간(重刊)하느라 감교(監校)할 때에 우연히 육신의 일을 보았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 정보(鄭保)가 난언(亂言)을 하였으므로 임금이 친국(親鞫)하였는데, 공초(供招)하기를

“늘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을 정인군자(正人君子)라 여겼으므로 실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노하여 환열(輓裂)하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좌우가 대답하기를,

“정모의 손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형벌을 멈추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충신의 후손이니 사형을 감면하는 것으로 논하여야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영일(迎日)로 귀양보냈다. 위와 같이 적혀 있었다. 그 묘소는 선생의 묘소 왼쪽 지맥(支脈)에 있다.

아아! 큰 옥사가 바야흐로 벌여졌을 때에 공이 홀로 항거하는 말을 하여 사실을 토로 하였으나 우리 광묘(光廟:세조(世祖))께서 특별히 선생 때문에 용서하셨고, 국장(國葬)에 터를 잡지 못하여 모든 산을 두루 다 살펴 보았으나 우리 선왕께서 특별히 선생의 묘소 때문에 특별한 분부가 계셨으며, 여러 선현(先賢)의 서원에서 편액을 칭한 것이 매우 많았으나 우리 성상께서 선생의 서원에만 어제로 편액을 내리셨으니, 열성(列聖)께서 숭장(崇獎)하시는 덕(德)은 전후에 방도가 한가지였다. 아아! 지극하시다. 수백 년 이래로 복돋우어 세우는 은전(恩典)을 극진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이두어 가지 일은 더우기 성대한 일인데, 적어서 밝혀 둔 데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내가 이제 주청사(奏請使)로서 중국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 사당 아래에서 배례하고, 오래 갈수록 더욱 모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등불을 가져오게 하고 입으로 불려 써서 유생들에게 주어, 영세토록 전하게 하며 아울러 서원의 전말을 위와 같이 적은 것이다.

忠烈書院講堂記 丙辰 兩原 李廷龜

先生書院在松都者以故宅也在烏川者以貫鄉也  
 在臨臯者以舊居也獨於墓下闢焉丙子年間多士  
 議建書院於竹田配以靜菴先生地在兩先生墓道  
 之中故也我先君及士人李贊實主張焉不幸被壬  
 辰兵燹為墟士林嗟惜駒城一境最剝於兵十餘年  
 來人烟未集靜菴先生墓下無子孫奴僕旗牧不禁  
 諸儒惡香火斷絕議撰祠宇於塋側歲乙巳余忝按  
 畿節展拜先生墓與縣監鄭從善進士李時尹鄭忠  
 傳等謀曰竹田書院重建合享是實先志而今無力  
 矣靜菴先生墓下既先建祠宇而此猶未遑非但斯  
 文之歎實我子孫之羞也遂以營中俸錢為根業求  
 助於子孫中為守宰者乃鳩材乃雇工括掘五箇月  
 祠宇成越三年訖功凡祠宇三間東西齋各二間門  
 樓三間上為講堂下為門厨房庫舍亦略具焉戊申  
 十月奉安神位其年冬李時尹等上疏請額 上特  
 賜御製名曰忠烈書院亦具數也仰瞻丘壠若或見  
 之欽尚高風多士永有依歸此生夙願庶少伸矣旨  
 在庚子年 懿仁王后葬期已過 園陵久未卜言  
 朝廷甚憂之今諸術官各舉所知而密啓士大夫墓  
 山無論貴戚皆與焉先生墓山亦在其中 先王命

禮官每道往審而獨於先生墓 下教曰設使鄭某  
 之墓與合於用豈忍使忠賢朽骨發掘於二百年之  
 後哉其特勿看余時忝長禮部實承是 命聞者莫  
 不感歎余嘗聞諸先君先生之孫鄭公保與六臣相  
 友善逮獄起公嘗慷慨公之庶妹韓明澮之妾也一  
 日公往訪焉問韓何往妹曰鞠罪人在關公醉罵曰  
 若殺此人令公當爲萬世罪人拂衣而去韓遂問鄭  
 某來有何言妾具以告韓即上關 啓之公遂被鞠  
 籍沒云而未得其詳丙午年余忝知春秋館事重刊  
 先朝實錄監校之際偶閱六臣事有曰鄭保有亂  
 言 上親鞠供曰常以成三問朴彭年等爲正人君  
 子故實有是言 上怒甚命輅之仍問此何人左右  
 對曰鄭某之孫也 上遂命止之曰忠臣之後空減  
 死論遂竄延日云墓在先生墓之左支嗚呼大獄方  
 張公獨抗言吐實而我 光廟特爲先生宥之 國  
 葬未卜諸山無不遍審而我 先王特爲先生墓有  
 別 教諸賢書院請額甚多而我 聖上獨於先生  
 書院 御製賜扁 列聖崇獎之德前後一揆吁其  
 至矣數百年來封植之典靡所不盡而此數事尤爲  
 盛舉記載無徵人或不知余今奉 奏朝 天來拜  
 祠下恐久益泯沒呼燈口授書與諸生俾傳永世并  
 記書院願末如右云

〈表紙說明〉

이경호(李景祐)

자는 효석(孝錫), 초명은 경조(景祚)이다.

본관은 용인(龍仁)으로, 1705(숙종 31)년에 좌의정 보혁(普赫)의 아  
 들로 태어나 1779(정조 3)년에 세상을 떠났다. 1735(영조 11)년에 생  
 원으로 뽑혀 충주목사에 이르고, 175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76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인양군(仁陽君)으로 습봉(襲封)되고, 경기도 관  
 찰사로 나갔다가 호조, 예조, 병조 판서 좌참찬(左參贊), 판의금부사(判  
 義禁府事)를 역임하고, 70세에 이르러 아들 제협(在協)의 영귀로 승록  
 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오르고 기사(著社)에 들어갔으며, 보국숭록대부  
 (輔國崇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영조가 그를 평하  
 여 「화려함이 없고 사무에 능통하다」고 하니 그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  
 겨 거처하는 방에 「무화(無華)」라는 액자를 만들어 걸었다.

## 오늘의 日本

李 相 鶴  
(西洋畫家)

日本の 生命藝術의 旗手, 西洋畫家 고노끼(此木)先生이 이끄는 靑樞會의 第 15回 東京都美術館에서 갖는 作品展示會에 韓國의 新形象系列의 作家로써의 한사람으로 招待된 영광의 기회에 우리의 이웃나라 日本의 오늘을 確認할 수 있게 되었다.

10日間의 단기간 여행 일정속에서 美術分野에 目的을 두고 東京과 찌바현(千葉縣)의 동서남북 일부지역을 여행하면서 日本國의 土質과 種族의 特性, 그리고 獨特한 生活의 形態등에 대하여 보고 느낀바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여행의 목적인 미술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수업의 한계를 이탈한 목적외의 관심사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굳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우리나라와 日本의 運命的인 歷史的 關係로 우리민족의 가슴속에 깊게 못박힌 정신적 인권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의식 감정이 심연깊숙이 살아 숨쉬고있는 오늘을 살고있는 한국인의 이 한사람이 오늘의 日本을 목격한 순간 극도로 예민해지지 않을수 없었던 관심사들을 미약한 소견으로나마 밝혀 보지 않을수 없는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과연 어떤나라 인가……? …땅과 종족인가에 대한 강렬한 의문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었던 것이었다.

日本은 일찌기 고대 百濟를 통해 대륙문화를 도입하였고 17세기에는 풍신수길의 국내를 통일하여 우리나라를 侵略하기도 하였으며, 19세기 말엽부터 청일, 노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킨뒤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는 1945년 연합군에게 패망한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동남부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3위의 莫強한 自衛隊를 키우고 있으며 전세계를 侵略? 하고있는 그 經濟力 또한 莫強한 나라이다.

남의 나라를 侵功, 侵略만을 일삼았던 그들은 대륙의 문화를 奪取하여 자기의 것으로 取하고 자기내들의 환경조건에 맞도록 착실하게 성장시켜온 매우 영리한 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獨逸은 戰犯國으로서의 죄값으로 兩分化 되었고, 太平洋전쟁을 일으킨 日本은 원자탄 세례로서 그 죄값을 치르고 兩斷의 運命을 면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여 36년간을 구속과 속박을 받아오다가 일본의 패망뒤 끝내 반도의 허리를 잘리우고 단일민족 단일정신마저 異色化된 한 많은 운명이 되어 버린 억울함을 日本과 같은 대전범국이 당했어야만이 마땅한 것을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당했어야만 했는가.

일제하에서 36년 해방이후 단일민족의 이색분단으로 빚어진 6·25전쟁 발발부터 40여년 지나간 세월을 아픈상처를 아물리며 동족과의 대치상황으로 웅크리고 살아오는 동안 日本은 중립의 선상에서 대륙침공 침략을 일삼았던 經綸에서 터득한 戰術로 他國의 長點 내지는 弱點에 초점을 맞추고 技術, 產業, 經濟를 무기삼아 전세계를 상대로한 전쟁을 통한 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그 戰術로 바꾸었던 것이 확실한 것이었다. 海外資産의 액수를 늘려가면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검손하게 合理的으로 대륙진출 침략을 진전시켜가고 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의 모습과 태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

젊음의 特性은 抵抗性和 模倣性 이라고 말할 수 있다.

抵抗性은 排戰的이고 투쟁적이며, 모험과 개척적인 素地가 充分한 것이나, 侵略性을 意味할 수 있으며, 模倣性은 침략성에 못지않는 奪取性和 盜癖性을 意味할 수도 있다.

또한 젊음의 表象은 오랜 年輪의 주름을 읽을수 없는 매우 미끈하고 단순하며 깔끔하고 두려움이 없는, 예의바르고 솔직하며 순진성을 띠고 있으며 精力이 넘치고, 속도감이 넘치는 삶의 추구성이 강하다. 선이 굵은 인생과는 달리 선이 가늘고 유연하며 질기고 질이 좋은 印象을 띤다.

지진과 화산이 있는 살아있는 땅! 젊음이 용솨음치는 땅! 그 젊은 땅 한 가운데 젊음의 정기가 우뚝 솟은 男根을 상징하는 富士山! 日本땅은 젊은 青年期에 있으며 그 땅의 土質과 人種의 本質이 바로 日本人的 表象인 것이었다.

진한 유향냄새를 풍기며 거대한 연기를 뿜어대고 땅이 부글부글 끓는 神山을 목격할 바와같이 언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生存을 영위 하고있는 일본의 農村地域의 담벽에까지 지진과 화산의 위험경고와 대피 안내판을 걸어두었고 각 가정에는 구급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다.

일찍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전부터 대륙探險길에 나섰던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記憶하고 있는터이지만 일찍부터 일본인들은 대륙 전망의 눈을 뜨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랜 침공 침략의 경험에서 그들은 土質의 根性으로 模倣性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산업경제를 무기삼으며, 자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으나, 가장 높이 평가 할 수 있는것은 외형적으로는 도시환경과 生活모습이나 언어가 온통 서양화된 일색을 띠고 있으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유의 전통적 양식을 그대로 보전하며 어느 한부분 부분에서는 아주 진하고 순수함마저 발견할 수있을 정도로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貴한 옛모습이지만 日本에는 현대화된 도시속에서의 고유한 전통미의 양식을 갖춘 것들을 종류별로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조상의 유업을 보전계승해 오고있는 점이나, 여관이나 술집등을 들러 보아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보전의식은 확실히 그들의 자랑스러움으로 여겨졌었다.

전통적인 양식이나 미를 자랑하는 일본인 자신들의 긍지를 돋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들의 獨特한 商魂意識이 강하게 表出되고 있었다. 어떤 방편에서건 상관없이 그것은 그들의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은 자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제나라의 전통적 양식의 시설과 토산품들을 갖추두고 미국내에서의 미국인 또는 미국을 觀光하는 外國人들을 留置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規模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의 역사가 짧은 미국내의 우리나라 교포들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傳統樣式을 갖추고 미국내에서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못하는 부끄러움과 아쉬움도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었다.

數年前 미국 시카고 교민회의 老人會 金貞彩先生께서 시카고에 常錄園 즉 코리아가-든(한국의 정원)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와 사회여론에 지원을 요청코자 입국하였을때 상봉하여 청사진을 펼쳐놓고 뜻을 함께한 일이 있었다.

시카고의 알파니공원 옆의 2만평방의 부지위에 한반도 금수강산의 땅형태를 갖추고 반만년의 고유한 유적의 모형들을 설치하여 이제라도 한국의 역사를 미국에 자랑하고 얼을 떨치고 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조국에 대한 愛國心を

昂揚케하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수 있는 한국의 정원을 세워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으나, 정부에서는 海外에는 많은 교민사회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만 지원한다면 다른지역 교민들로부터 공평치못한 지원을 탓하는 원성을 듣기가 쉽기도 하지만 지금의 정부형편상 困難하다는 難色표명 이었으나 外務部側 으로부터는 다소의 지원약속을 받았으며, 유명했었던 모 재벌회사로부터 지원약속을 받기도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不義의 사태변화로 양자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었다.

불행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내의 사정은 신문과 放送의 협조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金貞彩先生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더욱 아쉬움은 잊을수 없는 일이였으며 日本人들의 민족전통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적 수완에 대한 우리민족의 자존심 상실감마저 느껴져 심정이 몹시 상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日本을 목격한 후의 지금도 惡化된 채 상한심정이 아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日本여행중 첫대면부터 쉽게 경험할 수 있는것은 자기차잔의 綠茶를 대할 수 있다. 綠茶는 우리나라에서 보리차를 대하듯 식당에서든 가정집에서든 대접을 받는곳이면 컵째로 綠茶는 어김없이 나온다.

茶文化의 源流는 中國에 있다. 中國은 大黃河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황하의 수질은 황토물이라 그 수질이 매우 좋지않은 것이다.

수질이 좋지않은 사정은 십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물을 가장 신성시하는 이유는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요소 중 물이 차지하는 比率이 7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모태의 양수에서 태어난 인간은 물로부터 왔다고 할만치 人間生命에 있어서의 물은 매우 貴重한 존재인것은 물론 人間の 生命과 國運은 물의 좋고 나쁨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生覺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질이 좋지 않음으로 自然綠葉을 끓여서 마시되 生命水를 取하듯 禮意를 행하는 자세를 갖는 행위가 生活化되어 있었다. 茶道의 根本은 물을 神聖視하는데에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 국토를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했다. 산 좋고 물 맑으니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물에다 다른물질을 添加하여 끓여먹는 茶文化가 발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물, 生水를 그대로 취하는 것 외에 더 좋을것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평범한 한 가정에서 까지 다기를 소중히 갖춰두고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다도의 예를 갖추어 대접하는 예의의 대접을 받는 기회를 접한 경험을 갖게 되었었다.



물을 취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본래부터 수질이 좋지 않으므로 물을 끓이되 끓임으로써 그 순수성(生水)을 잃게됨으로 그 순수성 이상으로 취할수 있는 添加物中에 自然草葉의 푸른(綠)것을 택한 이유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綠色은 生, 살아있음을 뜻함으로 綠茶는 즉 生水와 같은것으로 취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좋지않은 물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常用飲料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늘은 산업폐기물에 의하여 그 맑고 좋은 수질이 나빠짐으로써 우리들의 실망은 매우 큰것이였다. 물은 물로서, 차는 차로서 분명하게 취해오던 우리는 어쩔수 없이 끓여마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끓여 마시는데에는 그 添加物로 걸보리가 특제품?으로 인정, 상용되고 있는데 그 걸보리를 그냥 添加하여 끓여 올거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를 불에 태워서 숯검댕이?를 만들어 물과같이 끓여 마시는 보리차, 보리차를 탄생시켜 常習的으로 음료수로 이용하는 보리茶文化民族이 되었다. 푸른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등, 綠茶를 마시자는 등의 다도강습회가 열려도 반응은 그리 대단치도 못할뿐, 보리차가 매우 인기가 드높은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것일까, 커피색깔과 같은 갈색의 親近感 때문일까, 아니면 승냥의 구수한 맛과 향수 때문일까

어쨌건, 보리쌀을 끓인물이니 보리물이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보리차, “茶”字를 붙여 쓰는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들은 이제 茶를 常飲하는 茶文化民族이 된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기세드높이 위엄있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있는 가운데 고궁과 전통가옥과 서양식 현대빌딩들이 어울리게 포근하게 자리잡고 앉아있는 서울의 경치를 일본인들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길으로보이는 경제대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부의 희열이 넘실대는 도쿄, 도쿄를 뒤로하고 찌빠현으로 향하면서 바라본 도쿄시는 삭막한 매마른 허허벌판 같이만 보였다. 自然, 바로 自然의 환경이 같이 하고있지 않은 때문이다.

자연환경의 품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안주하는 우리민족의 特性과는 달리 일본은 축소지향적 特性으로 자연을 축소하여 안으로 끌어들여 소유하는 까닭으로 외부에 넓게 아름다움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 라는 느낌을 전연 가질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나무들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의 풍치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고, 인생의 고뇌와 역경과 온갖 풍상의 세월이 서려있는것을 느낄수 있다. 또 바위산을 보면 인고의 술한 아픈세월을 인내한 꽃꽂하고 장엄한 자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나무에서 느낄수 있는것은 축축하고 무른 토질에서 풍란 없이

////////////////////////////////////

꼭게자란 그저 밋밋한 밋없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 밋없는 나무들과 바위와 산들만을 보아온 일본인들이 바위산이 나무가 어우러져 뚜렷이 조화를 이룬 자연속의 서울을 보고 아름답다 하지않을 수 있었겠는가.

日本人들은 다분히 靑年的 氣質을 띠고 있는것 같이 보인다. 생긴모습이 장대하고 우둔한, 선이 굵고 험상스러운 모양을 띠고 있다할지라도 탐지적이며 이지적인 인상을 주면서 순진하고 겸손한 태도와 작게 짧게 약삭빠르게 동작하는 세련미가 매우 독특하다.

그들 대부분의 가옥의 形態 그 내외부의 構造가 역시 작은것의 여러개로 形成되어 있음을 볼수가 있다.

西洋式 내부구조를 보면 화장실 속에는 욕실과 세면실, 대소변실이 한공간 속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들은 세면실, 욕실, 대소변실이 각방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점 등은 독립된것들이 모여 한덩어리가되는 團合形式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부구조가 각방마다 그 용도가 독립되어있듯이 외부의 지붕구조를 보아도 지붕이 크게 한덩어리로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현관은 현관지붕, 화장실은 화장실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것과 같이 큰지붕을 중심으로 작은 여러개의 지붕이 모양나게 달려있는 점이다. 마치 네개의 큰섬으로 하나의 국토를 이룬것과 같은 形像이다. 크게 대범하게 설치된것이 아니라, 장난감 같은 모양으로 보일정도이다. 더욱 의미롭게 보이는 것은 집주위의 사방에는 모래나 작은 자갈 또는 대리석 조각들을 깔아둔 점이였다.

풀한포기, 잡것이 섞여있지 않은 마치 하얀 無의 경지, 그 한가운데 우뚝 들어앉아있는 집의 형상은 日章旗를 意味 하듯이 한것이였다.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그들의 환경의 형태들은 국토의 형태와 국기(日章旗)의 형태와 연관된 형상을 띠고있는 점이다. 행동역시 무관한것이 아니였다. 중요한 대답을 들어서 나눌때 다다미방 한 가운데에다 상을 놓고 마주앉아 속삭이는 모양새 또한 일장기와 무관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精神的 意識속에는 국토와 국기를 상징하고 있는 연관적 삶의 특징으로 일본인 그들의 생활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였다.

日本國土의 自然的인 조건에 의한 그들의 生活面에서 비취지는 경제성과 식생활형태를 살펴보면, 일본인들과의 술좌석에서의 모습을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들로부터 권해 받은 술잔에 가득 채워준 술을 조금 마신다던가 반잔정도 마시고 나면 다시 처음의 술잔처럼 가득 한잔으로 채워준다. 우리나라의 술마시는 방법은 상대방의 술잔이 완전히 비워져 있어

야만 다시 가득 채워주지만 그들의 술잔은 완전히 비워버리는 법은 없다.

조금마시면 다시채워 처음의 술잔과 같이 한다. 음식도 가득 담긴 큰 그릇에서 작은 그릇으로 조금씩 옮겨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을 옮겨다 놓고 먹는다. 이런 행위는 實在性 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모자라는 것을 새것과 같이 채워두는 充填形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술잔의 술을 다마신 후에야만이 다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의 행위는 만족형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민족은 剩餘性 特性을 가진 민족이라고도 한다. 잉여의 특성은 迷信的 意味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인간이 태어난은 신의 점지에 비롯되며 사람은 이미 태어날때부터 제 먹을 것을 갖고 태어 난다라고 믿는 즉, 神과 人間과의 一體感의 본연의 심리를 곧 인간 생명의 에너지원의 모든것은 神으로 부터 받는것, 神의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쌀통의 쌀을 아주 다 비워버린단가. 밥그릇의 밥을 아주 깨끗이 비워버리면 그 밥그릇의 주인이 박복해 보일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서운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어떤 그릇에건 신의 것을 조금씩은 남겨둬으로써 神으로부터 그 그릇의 물건이 처음과 같이 얻어진다고 생각해서 조금씩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체면의 미덕과 유사시 어려울때를 생각해서 담겨두는 節約性을 강조한 지혜의 의미가 짙은 잉여특성을 가진 민족인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그 저의가 일본과 같을지는 모르나 일본인들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두는 형식을 취한다. 비축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매우 강한것이다.

준비와 충전과 비축의 특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숙명적으로 늘 불안한 자연적 재난을 의식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 숙명적인 자연환경의 조건에 의한 삶의 형태와 민족의 의식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된 근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싶다.

그들의 생활의 구조와 삶의 형태속에 그들 국토의 形像이 있고, 그들 민족의 精神속에는 日章旗가 있으며, 그들의 기질은 土質에 있는 것이었다.

깨끗한 하얀 하늘에 오로지 단 하나의 태양이 붉게 이글거리고 땅에서도 솟아오르는 불길, 불의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사는 민족, 매해마다 맨발로 불발을 태연스레 걸으며 幸運을 비는 행사를 갖는 민족이 바로 일본민족이었다.

中國은 아버지, 韓國은 어머니, 우리日本은 자식과 같은 관계라고 말하는 52세의 고노끼상의 이 말속에는 머언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하는, 그리고 미래의 관계를 상상케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일제의 침략과 동족분단의 상처만 없었던들 우리나라는 일찌기 반만년역



사의 굳건한 토대위에 빛나는 근대문화를 꽃피워 오늘날의 일본의 수준에 못지않았을 것이다. 선진국 문화를 자유로이 접할수도 여행할 수도 없었던 불행의 너울을 벗고 개방의 새시대를 맞이한 활짝열린 문밖으로 향하여 가까운 일본땅을 밟고 일본 美術界의 내외부환경을 목격할 순간 놀라움으로 가슴이 벅찼다.

우리나라의 국 사립 및 미술관과 화랑의 수는 몇십개에 불과하지만 동경과 은좌를 중심으로 삼천여개의 화랑이 밀집해 있으며, 국립, 현립, 시립, 서양미술관, 근대미술관, 민속박물관, 조각공원등 쉼새없이 열리는 수많은 전람회와 각종 예술공원등 한마디로 예술문화의 장이 풍부하지만 하였다.

동경과 저바현 일부지역을 여행하는동안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각종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동경도미술관에 유니폼을 단정히 갖춰입은 할머니들이 행사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미술관 뿐만 아니라 민속박물관이나 주차장 관리, 거대한 조각공원 및 공원의 청소와 기타 업무등을 남자노인들이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적에는 전부가 노인층으로 되어있는 제도는 매우 부럽게 느껴졌다.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노인인력의 활용 운영이 매우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섹스 수출의 제 1위국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만치 그들의 사회일면에는 섹스사업광고가 전화박스속에 여러종류의 구색을 갖춘 상품광고 카드가 꽂여있을 뿐만아니라 잡지속에서의 광고는 노골적이며, 주간잡지 표지 이면에는 완전 나체 여인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인간을 타락의 길로 유인하기 쉽상인 온갖 秘景?의 세계가 공공연히 범람하는 사회속에서도 근면하고 검소하며, 공공장소와 거리에서 담배 공초와 폐지를 구별하여 처리하는 태도와 절약성과 질서등이 개개인의 의식속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었다.

오늘의 일본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켜가고 있는것은 건전한 人間性 醇化를 爲한 藝術活動의 자유로움과 藝術文化의 場이 풍부한 환경의 所産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李相鶴 作 西洋畫(妊婦)

### 作 家 略 歷

- 第三八回 프랑스 파리 싸롱·드·메 招待作家選定展 日本 '82화인아트 國際美術展 入選(파리·동경전시)
- 京畿道 美術大展 '83 '85 優秀賞 '87 年度 特選
- '84 美國 L·A 올림픽 紀念 世界 100 人 選定 國際美術展 入選(캘리포니아 주립대미술관 외 11개 미술관 전시)
- '85 프랑스 파리 르·싸롱전 入選(파리 그랑팔레미술관)
- 木友會展 르·싸롱 출품작품 特別 招待展(國立現代美術館)
- '85 大韓民國美術大展 入選(國立現代美術館)
- 韓國現代美術大賞展 銀賞 同元老作家賞 受賞
- 國際文化交流 國際美術展 特選
- 양데광당전 9.10 회 出품(國立現代美術館)
- 木友會 公募展 연 2 회 入選(國立現代美術館)
- 韓國文藝振興院 企劃 受賞作品 招待展(美術會館)
- 栗谷教員教育院 소장전시 작품 100 號 製作
- 韓國美術協會展, 京畿道美術展, 漢陽大, 아주대, 문화원 招待展 等 現 韓國美術協會 會員

住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봉무 2리 산정동 38번지

電話: 서울 717-9488

## 용인문화원 89년도 문화행사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실시예정일	사 업 주 요 내 용
1. 향토고유문화 보존. 전승	제 4회용구 문화제 개최	89. 10월중	행사명 1. 민속마당놀이 타맥놀이, 송파산대놀이 취타대시연 2. 민속경연 농악: 각면단체전 씨름: 용인장사선발 그네: 개인전 줄다리기: 부녀자단체전 3. 무대공연 민속춤, 국악 4. 전시회 꽃꽂이전시회 미술작품전시회 서예전시회
	용구문화지 발간	계 간	계간지로 년 4회 발간 내용: 문화제등 발굴 1. 고유전통 2. 애향심고취에 관한 산문 3. 향토문화창달을 위한 산문 4. 내교장소식 5. 시, 수필 등
2. 향토사료의 수집 보존	용인금석문 자료 발간	7월중	용인의 총서로 제 8집 발간 계획
	청소년문화 강좌	6월중	관내 중학교 학생대상으로 실시 내용: 나라사랑의 길 위인이야기 관내유물유적지 소개
3. 지역사회 교육	경로효친성 양을 위한 새예절교육	5월중	관내 초등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1. 경로사상고취 2. 새예절교육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실시에정일	사 업 주 요 내 용
	제 6 회 영어 말하기 대회	9월 중	관내 초·중·고교 대상으로 실시 1. 영어암송대회(중등부) 2. 영어말하기대회(초, 중등부) 3. 영어존극대회(고등부) ※ 제목은 추후 통보
	제 6 회 피아노 경연 대회	10월 초	관내 초·중교생을 대상으로 실시 (지정곡은 추후 통보) 최우수상 : 피아노 1대
	제 8 회 사생 실기 대회	6월 중	관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사생실기대회 개최 (장소 : 자연농원)
	합창 대회	9월 중	관내 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지정곡추후통보)
4. 전 시 활 동	꽃 꽃 이 전 시 회	10월 중	꽃꽃이학원협조 (5일간 전시계획)
	미 술 작 품 전 시 회	10월 중	관내 화가 협조 (5일간 전시계획)
	서예 전시회	10월 중	관내 서예학원 협조 (5일간 전시계획)
5. 지역 문화의 개발 활동	문 화 서 당 운영	년 중 (3-11)	1 차년도 부녀자 대상으로 실시 내용 : 1. 한문, 서예, 펜글씨 2. 가정생활, 문화강좌, 시청각 교육 3. 내고장유물유적지 소개
6. 기 타 사 업	제 4 회 경로효친 선양글짓기공모	7월 중	관내 초등부 대상으로 경로효친(실사례) 글짓기공모
	어머니합창단	년 중	용인어머니합창단지원육성
	제 4 회 효도 관광 실시	10월 중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유적지 순례
	미스경기선발	4월 중	미스경기 출전비 지원
	민속춤육성	8월 중	용동중학교 민속춤육성
	취타대육성	8월 중	모현중학교 취타대 육성
	타 맥 놀 이	8월 중	이동면 묘봉리 타맥놀이 육성

## 용인문화원 88년도 사업실적

### ※ 제 3 회 용구문화제 ※

88서울올림픽성화봉송맞이 문화제전으로 실시하였음.

- 민속놀이  
취타대시연(모현중)  
타백놀이(이동묘봉리)  
송과산대놀이(명지대)  
민속춤(용동중)
- 민속경연  
농악 : 각 면 대항  
씨름 : 용인장사선발  
그네 : 부녀개인전  
마라톤 : 각 면 개인전
- 무대공연 : 국악인초청  
공연(이은주의 20명)
- 전시 : 용인에 유적유물  
사진전시(명지대)

일시 : 1988. 9. 14



### ※ 청소년 문화 강좌 ※

관내 각 중·고교생 대상으로 나라사랑의 길, 위인 이야기, 경로사상 선양 등의 문화 강좌를 실시

일시 : 1988. 11. 18~28



### ※ 용구문화제 발간 ※

민속문화제 발굴기, 애향심 고취에 관한 산문, 향토문화창달을 위한 논문, 시, 수필 등을 계간으로 발간.

### ※ 제 7 회 미술작품공모 및 전시회 ※

관내 유치부, 초·중고생 대상 미술작품공모전을 개최하였는바, 총 1,021 건의 응모작품중 100여점의 우수작을 선정 전시하였음.

일시 : 1988. 11. 29~12. 1





※ 제 5 회 영어말하기대회 ※

관내 초·중·고학생대상  
영어말하기 대회

1. 영어암송대회(중등부)
2. 영어말하기대회  
(초등부, 중등부)
3. 영어춘극대회(고등부)

시상 : 총 131 명중 18 명시상  
일시 : 1988. 9. 3



※ 제 5 회 피아노  
경연대회 ※

관내 초·중·고학생 대상  
피아노 경연대회(최우수상 :  
피아노 1 대, 금, 은, 동상)  
일시 : 1988.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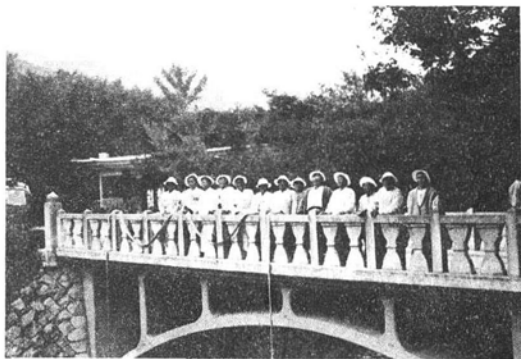
※ 제 3 회 효도관광 ※

관내 노인을 위한 유적지  
관광

장소 : 계룡산

인원 : 40 명

일시 : 1988. 10. 24



※ 종합시상식 ※

〈미술공모전 시상자〉  
 금 5 장려 20  
 은 14 입선 39  
 동 22  
 총 100  
 〈글짓기공모전 시상자〉  
 금 1, 은 2, 동 1,  
 가작 6 총 10명  
 일시 : 1988. 11. 15



※ 제 3 회 경로효친선양글짓기 공모 ※  
 초·중·고대상으로 실시  
 일시 : 1988. 10. 5

※ 경로효친생활독본 발간 배포 ※  
 경로효친생활독본을 조제 배포하여 청  
 소년의 경로효친선양과 새 예절과 효도정  
 신을 고취하였음  
 일시 : 1988. 11. 25

※ 어머니합창단  
 합창대회 ※  
 일시 : 1988. 7. 28









○ 제 3 회 글짓기공모당선자

학 교 명	성 명	학 년	제 목	
청 룡 국 민 학 교	오 현 숙	6 학년 1 반	우리집 웃음소리	금 은 은 동 가 가 가 가 가 가
기 흥 국 민 학 교	박 금 철	5 학년 2 반	외로우신 할아버지	
포 곡 국 민 학 교	이 현 아	6 학년 2 반	진정한 효도	
포 곡 국 민 학 교	이 제 문	5 학년 3 반	할아버지 말씀	
포 곡 국 민 학 교	허 민 영	5 학년 1 반	부모님의 사랑	
한 터 국 민 학 교	조 민 지	5 학년 1 반	경로효친	
한 터 국 민 학 교	이 재 현	6 학년 1 반	경로효친	
청 룡 국 민 학 교	박 정 아	4 학년 1 반	외로운 할아버지	
모 현 국 민 학 교	윤 민 혜	6 학년 1 반	할머니의 병	
수 정 국 민 학 교	정 현 숙	6 학년 1 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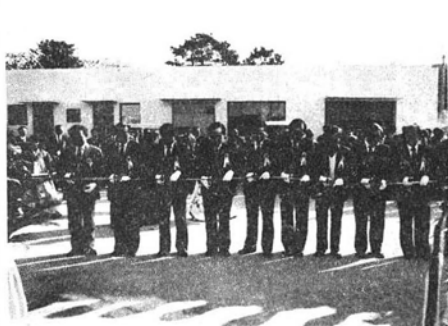
관내소식

龍仁農村指導所竣工

용인군민이 기대하던 용인군 농촌지도소 및 농공기술 훈련소 청사 준공식이 지난 12월 17일 용인읍 역북리 521 현지에서 예강환 군수를 비롯 영농기술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총사업비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대지 5,289㎡에 연건평 1,155㎡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된 신축 청사에는 사무실을 비롯 토양검정실, 예찰실, 농민상담실, 강당, 합숙소등이 마련됐다.

한편, 이곳에서는 매년 1,200여명의 영농기술자 및 영농지도자들이 식량작물, 소득작물등 교육을 받게 된다.





## 용내농협 양지분소 준공

1988년 12월 12일 내사면 양지리 628번지에서 용내농협양지분소 신축 청사 준공식이 김정길의원, 예강환 용인군수, 김성기교육장, 이의균 농협지부장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양지분소는 고 조춘상 조합장이 동부리 조합을 창설하여 1971년 용인면과 합병할때까지 용내농협의 모태였으며 600여 내사면 조합원의 요람이었다.

1973년 사무실 20평, 연쇄점 37평, 창고 54평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사업량의 증가로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협소하여 조합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조합원의 숙원사업으로 86년에 대지 1,310평을 2억 8천 8백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금년에 2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26평(연쇄점), 1층 125평(사무실 및 부대시설), 창고 100평을 신축하여 이날 준공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양지분소 사업규모는 조합원 640명에 예수금 30억 대출금 30억 등 사업량 76억으로 내사면지역경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사준공을 계기로 사업의 확대와 조합원에 편의제공으로 명실상부하게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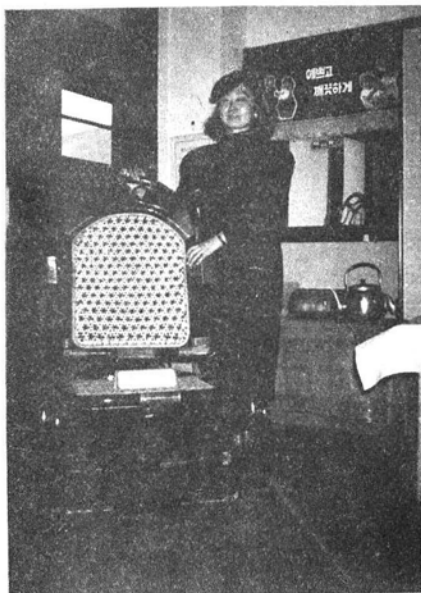








신갈국민학교 이연선 선생님이 그의 작품 '겨울 이미지'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신갈국민학교 등공예부 임정심 선생님이 그의 작품 흔들의자 앞에서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신갈국민학교 이진숙, 김정희 선생님이 그의 작품 '당신의 겨울' 앞에서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다.

# 편집후기

- ◆ 戊辰年 한해도 저물고 希望에 찬 己巳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龍丘文化”도 創刊(1984. 12. 1)로 시작하여 햇수로 어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이나이에 自由스럽게 짓지도 못하고 고작 남의 흉내만 내는 정도이다.
- ◆ 龍仁에 唯一한 鄉土誌로서 郡民의 사랑으로 커가야 할 本誌가 原稿마저 줄어들고 있는 實情이고 보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 ◆ 本院이 財政이 充分하다면 적은 稿料라도 마땅히 드려야 하나 現在로 어려운 事情이며 앞으로 그리 되기를 期待하면서 諸先生任의 變함없는 玉稿를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앞으로 새해와 함께 龍仁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龍丘文化”誌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많은 협조와 이해가 뒤따르기를 바라며 福된 希望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李 應 峻

용 구 문 화 제 17 호

1989년 1월 25일 인쇄

1989년 1월 31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흥익인쇄문화사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매품

# PRINTOPIA

☐ 청타·사진식자·전산사식 조판

☐ 학교교지·학위논문·출판물

편집 및 인쇄

☐ 마스타인쇄·원색옵셀 인쇄

☐ 세미나자료 및 연구보고서 인쇄

☐ 프로그램·팜프렛·카드로그

기획 및 인쇄

印刷의 모든것에

精誠을 다하는



30益印刷文化社

代表 姜 聲 俊

전화 : (02) 274 - 6155

(02) 277 - 4656

마음은 농촌 저축은 농업협



組合長 李 源 輔

**任員** 理事 高榮昌 李鍾麒 李鶴秀 金鍾賢 金春基  
尹炳旭

監事 金亨鎬 李建述

**職員** 專務 李載潤

資材部長 洪淳龍      信用部長 韓今錫  
販賣部長 金根培      指導部長 元裕龍  
婦女部長 沈玉蘭

# 龍水農業協同組合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85-6

전화 (0331) 8-5007

